

태안읍
명품시범거리
조성기본설계용역

2013.10



제 출 문

태안군수 귀하

본 보고서를 『태안읍 명품시범거리 조성 기본설계』 용역의
최종성과물로 제출합니다.

2013년 10월

충남발전연구원
원 장 강 현 수

01 계획의 개요

01.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01.2 계획의 성격

01.3 계획의 내용 및 범위

>> 계획의 배경

》가로환경의 수준 향상 요구

주민의 주요한 생활공간이며 외래방문객에게 활동공간을 제공과 지역 이미지를 전달하는 이동 공간인 가로에 대한 가치가 증대되고 있다.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환경과 가로의 구성 요소인 보도, 가로시설물, 가로수 식재에 대한 적합한 기능 및 미관적인 수준 상승이 요구되고 있다.

》태안군의 관문도로로서 지역정체성 확보

명품 시범거리 조성 기본계획의 공간적 대상인 태안읍 평촌교차로에서 남면교차로, 남면광장으로 이어지는 동백로는 태안읍 뿐 아니라 태안군 전체에 있어 비중높은 진입가로이다. 그럼에도 '아름다운 휴양도시 태안'이라는 정체성과는 동떨어지게 불편적인 도시의 가로 외관을 갖추고 있다.

》전선지중화 사업을 통한 가로환경의 전환점

태안읍 중심도로인 이곳에 전선지중화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짐에 따라 전신주 제거와 함께 보행 환경 및 가로수, 옥외광고물 정비 등 가로시설물의 설치기준을 정립하여 가로 외관 및 공간 정비를 통해 시범적인 개선 지구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시점이다.

>> 계획의 목적

》태안군의 관문 가로로서 위상 정립

본 계획은 대한민국 해양도시로서 대표성이 있는 태안군이 '아름다운 해양도시'라는 지역 정체성을 확보하고 군내 다른 지역에 파급시키기 위하여 관문 가로의 가로 환경 및 미관 조성을 위한 구체성 있는 디자인 방향을 수립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다.

》가로의 품격향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대상지역 가로를 포함한 보행로의 구조와 형태, 가로에 적합한 가로시설물의 유형과 디자인, 도시 외관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옥외광고물의 정비 방향을 수립함으로써 질서와 활력이 넘치며 품격있는 가로 이미지를 형성하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한다.

》사람중심의 가로 환경 조성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

가로의 보행환경, 시설환경, 시각환경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보행자가 걷고 활동하기에 편하고 쾌적한 가로 환경을 조성하여 가로의 주인공인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한다.



〈태안읍 현황〉

>> 계획의 성격

》기성시가지의 가로 정비를 위한 비법정 계획연구

본 계획은 기성 시가지의 여건 및 현황을 검토·분석하여 보행로 선형 및 포장, 가로 시설물, 가로수 수종, 식재 등 가로 정비 방향과 함께 구체적인 이미지를 포함하는 가로 단위의 정비 방안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비법정계획 연구의 성격을 갖는다.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선행적 기본 디자인 연구

본 계획에서 제시되는 가로 경관 디자인 안은 사업시행을 전제로 하며 전체 가로를 다루는 포괄적인 디자인과 집중적·단계별로 추진되어야 할 분야별 세부적인 디자인이 제시되는 선행적인 기본 연구이다.

》가로 경관 형성의 기준이 되는 선도적 연구

태안군의 관문인 태안읍 중심 가로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제안 내용을 토대로 태안군 전역의 가로환경 정비를 위한 디자인 계획 기준으로 정립하여 활용을 확대할 수 있는 선도적 연구이다.



〈백화산〉



〈꽃지해수욕장〉



〈신투사구〉

>> 계획의 내용 및 범위

>> 계획의 내용

태안읍대로 2-1호, 3-5호를 공간적 대상으로 하여 보행로 개선, 가로수 수종 및 식재 방안, 가로 시설물(가로등주, 볼라드, 벤치) 디자인 및 배치, 인도에 접한 상가의 옥외광고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태안군이 추구하는 '아름다운 휴양도시'의 위상에 걸맞는 도시의 품격을 형성하며 지역 주민에게 친근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운 도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 시간적 범위

계획기준년도 : 2013년

사 업 년 도 : 2015년 ~ 2019년 (5년간)



〈대상 가로 현황〉

>> 계획의 내용 및 범위

>> 공간적 범위

태안읍 대로 2-1호 : 평천교차로▶시외버스터미널▶남면사거리▶여고로터리

태안읍 대로 3-5호 : 남면사거리▶남면교차로

① 보행도로 및 가로시설물 정비를 위한 공간적 범위 :

평면적으로는 도로계획상 도로경계선 내로 하되 기존의 건축선 및 공개공지를 포함한 영역을 기준으로 하며, 공간적으로는 사유 공간을 제외한 건축물 입면과 차도 사이의 보행로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 식재를 위한 공간적 범위 :

보행로에 포함되는 현재의 가로수 식재 위치를 기준으로 하되, 보행자의 쾌적한 보행환경 마련을 우선으로 하며 전선지중화와 연계하여 식재 수종의 변경, 식재 범위 및 간격의 변동이 미치는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③ 옥외광물 정비를 위한 공간적 범위 :

옥외광고물(업소 간판)이 부착된 건물 외벽과 지주형 간판이 설치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업소의 부지만을 대상으로 하며 공유공간인 보행도로를 점유한 불법광고물은 철거를 원칙으로 함



>> 계획의 내용 및 범위

>> 내용적 범위

본 계획의 내용적 범위는 대상가로를 포함하는 포괄적 대상지역인 태안군과 직접 대상지역인 태안읍으로 이곳의 현황 조사 및 여건 분석을 통하여 대상 가로의 경관적 문제점 및 이용상의 불합리점을 도출해 낸다. 이를 토대로 가로의 콘셉트 부여, 정비기본 구상 및 디자인 계획, 사업 및 집행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내용이며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황조사 및 여건분석

현황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지역(군)의 장소성 및 자원 파악 · 대상가로 역사·문화자원(구전 스토리) 조사 · 대표 이미지 및 지역과 관련된 이슈
사례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 가로조성 및 정비사례 조사 · 이용자 요구에 따른 시설물 개발 사례경향 검토
관련계획 및 법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계획 및 법규 검토/시설물 기준,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공간구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고유성과 지역 경관형성과의 콘텍스트 · 건축물의 유형(건축 양식, 용도, 규모, 간판형태 등)파악 · 건축물의 입면 파악 · 대상가로에 대한 시각적 경관구조 분석
보행환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시설물 조사(가로시설물, 버스쉘터, 가로수 현황 등) · 도보 재료 및 노후정도 파악

② 가로경관의 기준

- 항목별 지자체의 가이드라인 등 설치 기준의 검토
 - 보행도로, 공공시설물 및 도로시설물(가로등, 보행등, 버스쉘터, 휴지통, 벤치, 불라드, 플랜터 등)의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 지역의 여건에 적합한 가로수 수종 및 식재 기준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자전거도로 및 로터리(라운드바웃) 설치 가능성 검토

③ 태안군 및 대상가로의 정체성

- 태안군의 지역 이미지 형성 및 표출 방안
 - 보행도로의 명칭 및 테마
 - 가로시설물의 지역성 표현

④ 문제점 및 과제도출

- 현황조사와 보편적인 경관 기준, 그리고 태안군이 지향하는 이미지와 대조를 통한 문제점 도출과 해결과제의 도출
- 도시공간 구조 측면, 심미적인 경관 측면

⑤ 디자인 개발 항목 및 결과물

부문		연구범위	정비계획대상
조경	경관 조경	① 가로수 수종, ② 식재방법	① 가로수 수종, ② 식재방법
공공시설물	교통계	① 보도 포장디자인 ② 볼라드 ③ 휠스 ④ 보도휠스 ⑤ 라운더바웃 ⑥ 자전거 도로	① 보도 포장디자인 ② 볼라드 ③ 휠스 ④ 보도휠스 ⑤ 라운더바웃 ⑥ 자전거 도로
	편의계	① 플랜터 ② 벤치 ③ 휴지통 ④ 차양시설물(터미널 전면)	① 플랜터 ② 벤치 ③ 휴지통 ④ 차양시설물(터미널 전면)
	조명계	① 가로등 ② 보행등(가로등 병용, 별도)	① 가로등 ② 보행등
	공공시설물 이미지 연출	① 대표 대상지 3곳	① 입체 구상도
옥외광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작성	①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⑥ 사업계획

부문	연구범위
사업투자계획	· 가로별, 부문별 사업비 산정 · 자원별 투자계획 · 단계별 투자계획
관리운영계획	· 사업추진 및 조성 후 관리 운영에 필요한 제도·예산·인력·장비 등의 확보 방안
주민참여방안	· 지역주민협의체 조직화 방안/지원 및 제도상 허용범위의 확대 · 주민 및 상인의 참여방안 – 내가게 화분 갖기/화분 콘테스트 – 주민 및 상인이 만드는 간판 디자인 – 공공디자인 아카데미
공공사업 연계방안	· 살고 싶은 도시 만들기 · 걷고 싶은 거리 만들기 · 안전하고 건강한 보행로 만들기

>> 디자인 기본 구상

>> 디자인 기본 원칙과 가로별 시설물 디자인 계획의 기본방향을 설정

- 디자인의 기본원칙은 ①대상가로의 품격 향상, ②활력 증진, ③조성 과정에 주민의 참여, ④ 조성 시설 및 환경의 지속가능성을 설정한다.
- 디자인의 전개에 있어 모티브는 ①자연적인 형상으로 꽃과 바다, ②정서적 측면에서는 대한 민국이 하나 된 화합의 메카, ③인공적인 형상으로는 태안 앞바다에서 발굴된 해저유물의 형상을 근간으로 하였다.

>> 기본원칙



품격있는 / Elegance



활력있는 / Vitality



함께하는 / Together



지속가능한 / Sustaina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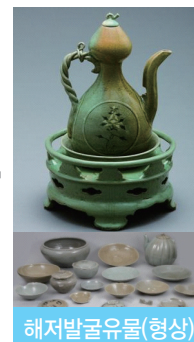
》 디자인 모티브



+



+



》 디자인 기본방향

가능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간 특성과 이용자 이용 형태를 겨냥한 기능의 부여 · 규모와 유형 및 설치 수 등의 산정
조형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정체성과 감각성을 유지 할 수 있는 형태 도출 · 조형 형태 및 구조 검토
시스템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시설물의 조합 시 시스템적 완성도 검토 · 기능의 복합성, 이용의 다변화 등의 기능성 검토
색채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가로의 운용 색상 도출 · 옥외광고물 사용 색상의 범위 설정

02 현황분석

- 02.1 대상지 현황
- 02.2 태안의 역사
- 02.3 태안의 상징
- 02.4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
도시 및 농어촌 개발
- 02.5 대상지 건축물 현황
- 02.6 대상가로 현황

>> 태안군(읍) 일반현황

>> 지리적 위치

- 태안군은 충청남도 최서북단 태안반도 중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서·남·북 3면 모두 바다에 둘러싸인 반도형태를 띠고 있다.
- 남쪽은 보령시 원산도를 마주보고 있으며, 북쪽으로 경기도의 덕적군도를 바라보고 있다. 동쪽으로 접하고 있는 서산시는 내륙으로 연결되는 육상교통의 유일한 관문이며, 서쪽은 서해로 315km 나가면 중국의 산둥반도에 이르게 되는데 일찍이 대륙문화가 이 서해를 통해 태안반도를 경유하여 유입되었다.

*안면도 영목에서 대천항을 잇는 연육교 계획 중

- 태안읍을 기준으로 충청남도 도청소재지인 내포신도시에서 직선거리로 북서쪽으로 35km, 서울로부터는 174km 남서쪽에 위치한다.

》 행정구역 및 면적

- 태안군은 2개 읍(태안읍, 안면읍)과 6개 면(고남면, 남면, 근흥면, 소원면, 원북면, 이원면)과 65개의 법정리로 구성되었으며, 면적은 504.99㎢에 달한다.
- 인구는 2011년 7월 31일을 기준으로 28,157세대, 63,034명으로, 인구의 42.6%가 태안읍에, 15.4%가 안면읍에 거주하여 읍 지역에만 군 전체의 58%에 달하는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1970년에는 105,120명)
- 군청소재지인 태안읍은 태안군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교통 등의 중심지로서 8개 읍면의 관문인 요충지로 자리잡고 있다.
- 태안읍은 행정구역상으로는 13개 법정리에 43개의 행정리와 206개의 반, 90개의 자연부락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총면적이 87.62㎢로서 태안군 총면적의 17.3%에 해당되는데 이는 안면읍 다음으로 큰 규모이다.

서해



>> 태안군(읍) 일반현황

》기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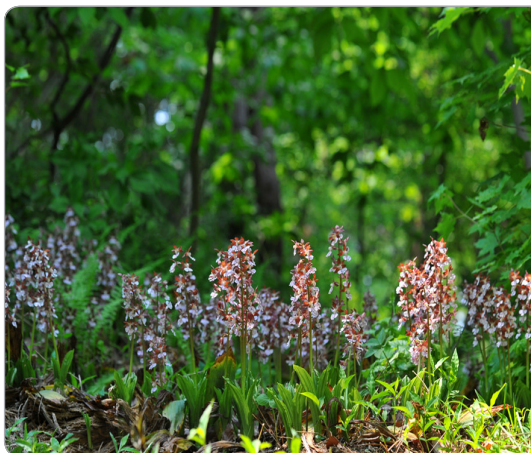
- 3면이 바다에 면한 지역의 온대기후대로 4계절이 뚜렷하며 한서의 차가 심하지 않은 전형적인 해양성 기후현상이 나타난다.
- 연평균기온은 12.1℃이며, 연평균 강수량은 1,383mm에 이른다. (2003~2012년 평균)
- 계절별 강수량은 6~8월에 내린 강수량은 전체 강수량의 54.0%를 차지하며, 특히 8월에 연간 강수량의 28.2%가 집중되고 있다.



〈태안 바다 풍경〉

》 태안군(읍) 자연환경

- 태안군의 지형은 백화산을 중심으로 하는 북측에는 산악지대가 분포해 있고 남측에는 저산성 구릉 지대가 형성되고 있으며 3면이 바다에 접해있는 리아스식 해안이 잘 발달한 반도형태이다.
- 태안반도 지역은 동측인 가야산지에서 서쪽으로 뺀 낮은 산지가 주축을 이루는 지형으로, 중앙 부의 팔봉산(321m)과 백화산(284m)으로 솟았다가 다시 서쪽으로 뺀 서해와 만나면서 수 많은 만입과 곶을 비롯한 크고 작은 도서를 형성하고 있다.
- 리아스식 해안의 발달로 530.8km에 이르는 해안선에는 갯벌, 섬, 해수욕장이 다수 분포하며, 경사 면에는 주로 해식애가 형성되어 있다.
- 유인도 10개, 무인도 109개 등 총 119개의 크고 작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섬의 총 면적은 125.4km²로 태안군 면적의 24.8%에 해당된다.
- 태안반도 지역은 조선시대 이전부터 간척이 시작되어 2000년대 까지 진행되고 있어 태안군의 면적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 완만한 구릉지를 이루고 있어 특색 있는 동물상은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조류 및 곤충류의 분포는 국내 중서부 지방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식물상에서는 난대성 식물과 해안성 식물 등 다양한 식물군과 수종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태안군의 특색 있는 식물상으로는 안면도에 자생하는 새우란과 한란을 포함하여 굴거리나무, 서울제비꽃, 동백나무군락, 모감주나무군락(천연기념물 제138호) 등이 분포하고 있다.



〈새우란〉



〈동백나무〉



〈모감주나무〉

>> 연혁 및 지명 유래

》 연혁

- 태안(泰安)이란 명칭은 고려시대 충렬왕 24년(1298) 당시 소태현(蘇泰縣)으로 불리던 지명이 태안으로 변경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국태민안(國泰民安)의 의미를 지닌다.
- 태안읍은 본래 태안군의 군청 소재지인 중심지였으나,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태안군을 서산군에 통폐합시키면서 태안면으로 격하되었다.
-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호에 따라 태안군으로 복군되어 태안읍에 군청소재지가 들어서게 되었다.

부 문	연 혁
선사시대	· 안면도 고남면과 남면의 달산 패총군에서 신석기시대의 유물이 발견됨 · 태안읍 장산리에서 7기, 고남면 고남리에서 1기의 청동기 유적(고인돌)이 발견됨
고대	· 마한 54개국 중 신소도국(臣蘇塗國)과 고랍국(古臘國)이 태안에 위치함 *신소도국은 현재 태안읍 동문리 백화산 기슭 샘골일대로 추정되며, 고랍국은 고남면 고남리 부근으로 추정됨
백제~통일신라	· 365년 근초고왕이 마한 54개국을 정복하여 백제국에 병합하여 성대혜현(省大兮縣)으로 개편한 후, 5세기 말엽부터 대륙과 교류가 시작됨 · 신라 경덕왕 15년,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성대혜현이 소태현으로 개칭됨
고려~조선	· 고려 충렬왕 24년에 소태현 출신 이대순이 원(元)으로부터 총애를 받아 소태가 태안으로 개칭되고 군으로 승격됨 · 조선 태종 13년 (1413)에 군현제도를 대폭 개편하는데 이때 충청도 관할의 태안은 14군 중의 하나로 됨
근대~현대	· 일제 강점기였던 1914년에 이르러 통치수단의 일환으로 행정구역개편을 단행하면서 태안군을 폐합하여 면으로 격하하여 서산군에 예속시킴 · 1973년 7월 태안읍 승격, 1989년 1월 1일 법률 제4050에 따라 복군됨



〈두꺼비 모양 퇴화문 청자벼루〉



〈백화산성〉



〈태안마애삼존불〉



〈목애당 전경〉

>> 연혁 및 지명 유래

>> 태안읍 지명유래

지 명	유 래
남문리 (南門里)	본래 부내면 · 군내면과 태안면의 관할지역으로 태안읍성의 남문 근처에 형성된 지역으로 남문거리 또는 남문이라 부른데서 유래되었다.
동문리 (東門里)	본래 부내면 · 군내면과 태안면의 관할지역으로 태안읍성의 동문 근처에 형성된 지역으로 동문밖 또는 동문이라 부른데서 유래되었다.
남산리 (南山里)	본래 부내면 · 군내면과 태안면의 관할지역으로 남산 밑에 형성된 지역으로 인근 지역을 병합되었지만 남산리라는 지명은 지속되었다.
송암리 (松岩里)	본래 부내면 · 군내면과 태안면의 관할지역으로 소나무와 바위가 많아 송암리로 불리게 되었다.
반곡리 (盤谷里)	본래 부내면 · 군내면과 태안면의 관할지역으로 지형이 마치 산들이 서리어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해서 글자 그대로 서리실(盤谷)이라 부르게 된데서 유래하였다.
평천리 (平川里)	본래 부내면 · 군내면 · 동이면 관할 지역 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평촌리 · 천월리 등의 지역이 편입되면서 앞 글자를 따 평천리로 불리게 되었다.
인평리 (仁坪里)	본래 태안군 동일면 · 동이면 관할 지역 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흥인리 · 창평리 등의 지역이 편입되면서 앞 글자를 따 인평리로 불리게 되었다.
상옥리 (上玉里)	본래 태안군 동이면 관할 지역 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옥항리 · 물상리 등의 지역이 편입되면서 앞 글자를 따 상옥리로 불리게 되었다.
도내리 (島內里)	본래 태안군 동일면 관할 지역 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부 지역을 편입하면서 도내리로 불리게 되었다.
어은리 (漁隱里)	본래 태안군 동일면 관할 지역 이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산이 많아 응달이 많아 응굴 · 은굴 · 은동 · 어은동으로 불리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부 지역을 편입하면서 어은리로 불리게 되었다.
산후리 (山後里)	본래 태안군 동일면 관할 지역으로 백화산 뒷편에 형성되어 산뒤 · 산후라 하였다가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부 지역을 편입하면서 산후리로 불리게 되었다.
삭선리 (朔善里)	본래 태안군 동일면 관할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부 지역 편입되어서도 삭선리로 불리게 되었다.
장산리 (長山里)	본래 태안군 동일면 관할 지역이었는데 1914년 행정구역 폐합에 따라 일부 지역 이 편입되어서도 장산리로 불리게 되었다.

》 태안읍 지명설화

설 화	유 래
질갓 (陶冠)	15살에 과거 급제하여 태안군수로 부임 받은 송관화가 군수에게 무례하게 구는 육방관속을 꾸짖으려 질갓과 굽 높은 나막신을 신겼다는 설화이다.
백화산	산 전체가 흰 돌로 덮힌 백화산은 서울을 등지고 있어 조선조 동안 이 지역 출신의 과거급제자가 없었다. 그러나 흑화산으로 변하면 인재가 난다고 알려져 일제 말엽 송림으로 검게 변하기도 하고 최근에도 흑화산으로 변모하고 있다.
황정말	평천리 3구 부락 이름으로 인심 좋고 우애 있던 황부자와 정부자가 자녀의 결혼을 반대하면서 사이가 멀어졌다가 자녀들이 죽은 후에야 뉘우치고 다시 주민에게 선행을 하였다고 한다.
파명당 (破明堂)	도내리 1구 53번지의 집터에 얹힌 이야기로 효심 깊은 둘째 아들이 선친의 묘자리로 명당을 찾았으나 형의 무지로 명당의 기운이 사라진 파명당 설화이다.
사절미산 (蛇截尾山)	송암리 1구 아산에 얹힌 이야기로 우애가 깊은 형제가 참새 떼와 뱀들의 다툼으로 산신이 노하여 불벼락으로 뱀과 참새가 몰사하는 것을 목격하였는데 이때 뱀이 꼬리가 잘려서 죽었다하여 사절미산이라 하였다.
산후리1	왜구의 침략이 심했던 때 산신령의 계시로 백화산으로 피난가던 부부가 산적에게 봉변을 당하던 중 호랑이에 의해 간 곳에서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산후리 2	수목을 아끼고 가꾸던 부부를 시기한 심술장이가 부부의 집과 수목에 불을 놓았으나 타지 않고 남은 나무가 있었으니 그 나무 이름이 산후리였고 그 연유로 마을 이름으로 부르게 되었다.
까치샘	장산리 1구에 있는 샘으로 조선조 초기 가뭄이 극심할 때 기우제를 지내던 중 말라붙은 논바닥에서 물을 찾은 까치로 인하여 샘을 발견하게 되어 까치샘이라 명명하게 되었다.
방가뭇의 전설	백화산에 치성을 드려 아이를 얻은 방가 부부가 아이의 신통력을 알게 되자 요괴로 여겨 살해한다. 본래 아이는 난세를 구할 영웅이었는데 그 꿈을 이루지 못하자 백화산 속으로 사라지고 갈라졌던 산 중턱에서 물이 흘렀고 그 옆에 고인물이 방가뭇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배은망덕의 결과	선승의 도움으로 부친의 묘를 명당으로 이장하여 신세가 펴기 시작한 젊은이가 선승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욕심을 부리자 도로 옛날처럼 가난한 처지로 되돌아간다는 이야기이다.

>> 주요 이슈

>> 안면도국제꽃박람회

안면도국제 꽃박람회는 국내 화훼산업의 발전과 서해안 개발, 충남 및 안면도의 국제 관광 명소로 육성하기위한 목적으로 기획되어 2002년과 2009년 두 차례 안면도 꽃지 일원에서 개최되었다. 특히 2009년 박람회는 2007년 기름 유출 사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태안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해 마련되어 온 국민의 관심과 참여 속에 성황리에 마쳤다. 충청남도농업기술원 꽃박람회 주 전시장인 꽃지해안공원을 2015년까지 '꽃 테마파크'로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으며 이후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 해저유물

2007년 근흥면 마도해역에서 고려시대 때 침몰된 화물선(마도1, 2, 3)의 선체에서 선체 잔해 및 도자기, 철제, 목제류 유물 1,583점이 발굴 됐다. 발굴된 유물 중 특히 청자는 전성기 때의 고려청자로 기종과 기형이 다양한 고급품의 주전자 세트, 발우 등이 포함되었다. 어로 작업 중 주꾸미가 청자발우를 끌고나와 발굴이 시작된 일화가 있다.



〈2009 태안세계꽃박람회〉



〈해저유물 작은단지〉

》 허베이호 기름유출사고

2007년 12월 7일 태안군 만리포해수욕장 북서방 5마일 해상에서 삼성중공업 소속 예인석이 입항대기 중이던 유조선 허베이스피리티호와 충돌하면서 12,547kℓ의 원유가 해상에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된다. 이 사고로 가로림만에서 가의도에 이르는 해양과 해안이 원유로 오염되어 태안 등 6개 지역이 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다. 전국각지에서 모여든 130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과 주민들의 노력으로 기본방제가 완료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태안이 온 국민이 하나 된 온정과 화합의 중심지로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

태안 기름유출 피해 급속 확산...정부 재난사태 선포

경향신문 | 기사입력 2007-12-09 19:29 | 최종수정 2007-12-09 22:25 | 기사원문

충남 태안 앞바다에서 발생한 원유 유출사고의 피해 지역이 해안선을 따라 확산되고 있다.

사고 유조선은 9일 오전 7시30분쯤 파손 부위에 대한 응급조치로 더 이상의 기름 유출은 멈췄으나 이미 새 나온 기름은 거대한 오염지대를 형성, 해류를 타고 빠른 속도로 퍼져나가고 있다.

태안군 남면 상도에서 원북면 태안 화력간 33km 해변에는 폭 10~30m의 기름 띠가 엉겨붙어 어민들의 큰 피해가 예상된다. 사고 해역에는 유조선으로부터



〈만리포 기름유출사고 현장〉



〈복구작업하는 자원봉사자〉

>> 공식 상징물

>> 심벌마크

태안 명칭의 첫 글자인 "ㄷ"과 "ㅇ"을 시각적으로 이미지화하여 군민의 일체감의 조성과 태안군의 밝은 미래를 상징하고 있다. 아름다운 낙조와 밝은 미래를 상징하는 적색과 청정 관광지를 표현하는 녹색, 절경 해안을 상징하는 청색으로 태안의 자연과 풍요로운 삶, 진취적인 기상을 표현하고 있다.

>> 마스코트 (태돌이)

태안의 특산물인 꽃게를 의인화하여 재치와 영리함, 은근과 끈기 있는 성격을 친근하게 표현하고 있으며, 꽃게가 서식하는 청정 바다라는 이미지를 나타내고 있다.

>> 군화/동백꽃

동백은 우리나라 남서해안에 서식하며 거친 바다의 바람과 파도를 굳건하게 막아주는 봄철 붉은 꽃을 피우는 상록수이다. 질푸른 잎과 대조를 이루는 붉은 꽃은 변치 않는 기개와 절개를 상징한다.

>> 군조/갈매기

서해를 낀 태안 해안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갈매기는 창공을 조감하듯이 더 높이 더 멀리 비약하려는 태안의 원대한 포부를 담고 있다.

>> 군목/소나무

소나무는 우리 산야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수종이면서 늘 푸르름으로 향토색 짙은 정감과 강인한 의지를 함축하고 있다. 서해안의 소나무는 다른 형상과 기능을 지니고 있는데 특히 안면도의 소나무는 특유의 자태로 유명하다.



〈태안로고 및 마스코트〉

〈동백꽃〉

〈갈매기〉

〈안면송림〉

>> 태안팔경

부 문	연 혁
백화산	태안읍 동문리에 위치한 태안의 주산으로 산세가 수려하며 정상에 오르면 서해안 일대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을 자랑한다.
안흥성	근흥면 정족리에 위치한 수려한 산세에 서해 방어와 관련된 유서 깊은 관방유적이다. 성을 배경으로 하는 산 정상에 오르면 서해의 리아스식 해안이 그림처럼 펼쳐진다.
안면송림	안면읍 정당리에 군락을 이루고 있는 이 지역 특유의 소나무 숲으로 조선시대 궁궐 건축과 선박 건조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유림으로 보호받은 결과 하늘을 찌를듯한 우아한 자태의 군락을 보여준다.
만리포	소원면 모항리에 위치한 서해안을 대표하는 해수욕장으로 넓게 펼쳐진 은빛 모래밭, 울창한 송림을 자랑한다. 『만리포사랑』 노래로 더 유명하고 2007년 해베이호 유류유출사고의 복구과정에 온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곳이다.
신두사구	원북면 신두리해안을 따라 형성된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규모의 해안사구이다. 해류에 의해 운반된 모래가 파랑과 바람의 작용이 오랜 세월 반복된 결과 독특한 생태계를 형성하였다. (천연기념물 제431호)
가의도	안흥항에서 서쪽으로 5.5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섬으로 동백나무와 떡갈나무로 이루어진 원시 천연림이 이채롭다. 해안을 따라 펼쳐진 기암절벽의 풍경은 한편의 파노라마를 연출한다.
몽산해변	국내 유일의 해안국립공원 내 천혜의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해변으로 동양 최대의 리아스식 해안의 백사장과 울창한 송림을 자랑한다. 2006년에는 '전국 우수해수욕장'으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할미 할아비 바위	안면읍 승언리 안면도꽃박람회장 맞은편 해안에 있는 바위로 낙조 무렵에는 황홀한 저녁놀 풍경을 자아내어 관광객과 사진작가를 모여들게 한다. 바위에는 승언장군과 미도부인의 애절한 이야기도 담겨 전해온다.



>> 태안군 중장기 종합계획/도시 및 농어촌 개발

>> 정책목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환경친화적 살기 편안한 도시"

에너지 절약 및 탄소 저감형 친환경적인 도시기반 조성

도시활성화를 위한 창조적 중심 시가지 재생

- 태안읍 중심시가지 재생사업/보행자 중심의 가로시설물 정비
- 시가지 재생 협력체계 구축 시범사업/주민 상인이 함께하는 협의체계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재생을 통한 활력 회복/보행로 정비, 개성있는 가로시설물 도입

친환경적인 정주환경 조성을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

- 사회적 약자를 배려한 도시기반시설 구축 및 도시문화형성/유니버설디자인
- 공공디자인 도입을 통한 도시이미지 창출과 주거환경 개선/공공디자인 계획 수립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하는 개성 있는 도시문화 창조

- 도시브랜드화 및 마케팅 사업/태안 자원의 발굴, 도시이야기 창출



〈Sapporo, Japan〉



〈Zaragoza, Spain〉



〈Bilbao, Spain〉



〈San Diego, U.S.〉

>> 가로 및 건축물 현황

》도로구조 및 형태

- 본 계획의 대상 구역은 태안군의 관문이라 할 수 있는 평천교차로에서 서북향으로 태안읍의 중심지를 관통하여 태안여고 로터리로 이어지는 동백로(2.7km)와 남면사거리에서 32번 국도와 연결되는 남면교차로를 연결하는 환동로(590m)이다.
- 대상구역 내에는 대중교통수단의 관문인 태안버스터미널이 위치하고 있으며 농협, 우체국 등 주요 공공기관을 비롯하여 의료시설, 음식점, 의류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다.
- 평천교차로를 중심으로 동편으로 새롭게 태안기업도시가 조성되면서 상대적으로 기성 시가지에 해당되는 대상지의 도시환경의 개선이 요구된다.

》보행로

- 계획 대상 가로의 도로 폭이 왕복 6차선으로 구성되어 차량 통행에 있어 여유가 있는 규모이다. 이에 비해 보행로의 규모는 상대적으로 부족하게 계획되어 있어 보행기능을 충족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별도의 가로시설물의 적극적인 설치에는 제약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 보행로의 포장은 시멘트제의 장방형 블록을 교차 배열한 형태로 차로쪽과 건물쪽으로 2분할하여 도로 쪽은 적색계열을 적용하였고 건물 쪽은 시멘트 재료색을 그대로 적용하였으며 일부 교차로 구간에는 적색 오지벽돌로 표면을 포장하였다.
- 보행로는 개별 길이를 살펴보면 10m의 단거리에서 330m에 이르는 다양한 길이로 연결되어 총연장 4,798m의 보행로를 형성하고 있으며, 총길이에 비해 단순한 재질과 패턴이 연속되어 단조로움을 주고 있다.

- 건축선의 적용이 불규칙하여 보행로의 폭이 좁은 곳은 2m에서 넓은 곳은 5.5m로 나타나 건축물이 연속성을 갖추는데 저해 요소가 되고 있다.
- 도로와 보행로의 단차 경계가 분명하게 조성되어 있으며 보행자가 출입하는 지점에서는 경계석이 낮게 설치되는 동시에 휠체어 및 유모차의 통행이 수월하게 경사로를 두는 등 무장애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 우리나라 지형 및 기후 상 흔히 나타나는 지반 침하가 보행로 상에 간혹 나타나며 시공시기의 차이에 따른 블록 패턴의 연결 미비, 마감 시공 상태의 미흡, 보수 시 다른 재질 사용에 따른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표1〉 보행로의 길이별 분포

10m	1개소	40m	2개소	50m	7개소	60m	3개소	70m	2개소	80m	3개소
90m	5개소	110m	2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10m	1개소



〈태안읍 현황〉

>> 가로 및 건축물 현황

》가로변 상업건축물 용도

- 평천교차로에 맞닿은 초입부에는 공인중개사, 건설관련 업종의 소규모 점포들이 산재되어 있으며, 나가는 방향으로 주유소가 입지해 있다.
- 농협건물을 지나 공영버스터미널이 위치한 중심부에는 비교적 고층의 신축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의류, 병원, 음식점, 통신기기 판매점 등이 입점하고 있다.
- 수협건물을 지나면서 다시 낮은 층수의 노후 된 건물들로 이루어진 건물 군이 나타나는데 공인중개사, 음식점, 용역사, 건축 및 설비관련 업소가 혼재되어 있으며, 일부 고층의 신규건축물이 들어서 있다.
- 황동로는 동백로에 비해 상권이 밀집되어 있지 않으며 자동차 정비업체, 용역사, 음식점, 교회 등이 산재되어 있다. 건축선은 대부분 보행도로의 경계에서 후퇴되어 형성되어 있다.
- 대상 가로의 상업 유형을 총 7가지 업종 35가지 세부업종으로 구분하여 분포 현황을 살펴본 결과,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3구역에 전체 상권의 50%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2〉 가로변 상업건축물 용도 분포

용 도									합계	
대분류	소매업	생활 서비스업	식품 접객업	건축·건설·제조업	공인 중개업	의료 관련업	기타			
구역	1	5	16	5	19	5		2	52	338
	2	15	14	3	32	8		12	84	
	3	44	24	30	16	15	23	8	160	
	4	6	1		11	22		2	42	
비율(%)		20.6	16.2	11.2	22.9	14.8	7.35	7.1	100%	



>> 가로 및 건축물 현황

》가로변 상업건축물 층수

- 계획 대상지 중 버스터미널이 위치한 3구역을 중심으로 비교적 고층에 해당되는 6~8층에 이르는 규모있는 상업용도의 건축물이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다. 그밖에 1, 2, 4 구역에는 대부분 1~3층의 소규모 건축물이 분포하고 있다.
- 평천교차로에서 진입한 초입부에는 단층 위주의 건축물이 산재되어 있으며, 이중 단독 단층 건물은 임시건축 형태를 보이고 있다. 건축선의 위치는 보행로와 인접한 건축과 후퇴한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 농협건물을 지나 버스터미널을 중심으로 하는 구역에는 버스터미널이 2층인 것을 제외하고 3~6층의 비교적 고층 건물이 들어서 있으며, 최근 신축한 건물 중에는 7층 건물도 있다. 건축선의 위치는 보행로와 인접한 유형이 대부분으로 후퇴한 유형도 일부 볼 수 있다.
- 수협건물을 지나면서 층고는 다시 1~3층 높이로 낮아지는데 일부 신축건물은 3~6층 규모를 보여 준다. 건축선의 위치는 건축 시기에 따라 보행로에 인접한 유형과 후퇴된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 횡동로는 교회건물 및 일부 건축물을 제외하면 단층 위주의 낮은 규모를 보이고 있다.

〈표3〉 가로변 상업건축물 층수 분포

분류		건축물 층수			합계 · 비율(%)
		1층	2~3층	4~8층	
구역	1	10	8	3	21(16.7)
	2	21	2	4	27(21.4)
	3	33	19	9	61(48.4)
	4	10	7		17(13.5)
합계 비율(%)		74 (58.7)	36 (28.6)	16 (12.7)	126 (100)



>> 가로 및 건축물 현황

》가로변 상업건축물 입면 상태

- 계획 대상지 내 상업건축물의 외벽상태는 건축물의 조성 시기 및 규모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본 계획의 주요 내용인 간판 교체 사업과 연관되어 검토되어야 한다.
- 건축물의 입면 상태는 도색 등 보수에 따라 상, 중, 하 3단계로 구분하였으며, 전체 126개소의 상업건축물 중 상태가 양호한 정도는 30.8%이며, 중간 단계인 중은 22.8%, 즉시 보수가 요구되는 등급인 하에 해당되는 상업건축물은 전체의 절반에 가까운 46.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건축물의 입면 상태를 구역별로 살펴보면 중심상업구역인 3구역에서는 양호한 건축물의 비율이 25개소로 48.1%를 보이고 있는 반면, 1, 2, 4구역에서는 하 등급이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진입부인 4구역의 경우 단층 위주의 조립식 건축으로 인하여 하 등급이 70.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4〉 상업건축물 입면 상태

구분		외벽상태			합계 · 비율(%)
		상	중	하	
구역	1	5	7	9	21(16.5)
	2	8	7	22	37(29.1)
	3	25	11	16	52(40.9)
	4	1	4	11	17(13.4)
합 계 비율(%)		39 (30.8)	29 (22.8)	58 (46.4)	126 (100)



〈대성가로 전체 현황〉

>> 가로 시설물 현황

>> 화분/플랜터

- 보행로의 폭 등 설치 공간의 복잡도를 고려하지 않고 커다란 둥근 수반형태의 화분을 배치하여 보행자의 통행에 불편을 주고 있다.
- *수반형태는 광장과 같은 넓은 공간에 적합한 유형임
- 플라스틱(재생 폴리에틸렌)재질의 성형물에 외부를 도색한 유형으로 제작이 저렴하여 비용이 적게 소요되나 장소의 품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 무거운 중량으로 인해 이동이 어려워 바닥 청결 등 유지·관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며, 개화시기 이외의 동절기에는 비어있는 상태로 방치되는 실정이다.
- 대부분 기성제품으로 지역 상징성이 없기 때문에 표면에 지자체 상징물 등을 별도로 삽입하는 경우가 많아 공공디자인에서 추구하는 기본방향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 *공공디자인에서는 시설물에 지자체 상징물 표시를 절제하고 있음



〈태안읍 화분현황〉

》 가로수 보호덮개

- 대상지에 식재된 가로수는 아직까지 수령이 짧아 뿌리올림현상 등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가로수의 특성상 장기간 식재되므로 대비의 마련이 요구된다.
- 보도블럭 상에 경계석이 감싼 사각 또는 반팔각형태의 경계에 별다른 구조물 없이 토사가 노출되어 있는 단순한 형태이다.
- 주변환경에 조화되지 않는 재질과 색채 적용으로 산만한 가로 경관을 형성하고 있다.
- 보도블럭에 비해 관리 및 청소가 용이하지 않다.
- 가로수와 조화되는 화초의 추가적인 식재가 불가능하다.



〈태안읍 가로수보호덮개 현황〉

>> 가로 시설물 현황

》볼라드

- 계획 대상지의 볼라드는 보행로와 차로가 연결되는 횡단보도의 경계 지점에 차량의 보행로 진입을 방지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어 있다.
- 대상지에는 석재 1종, 주물제 1종, 스테인리스 스틸 + 수지외피 1종, 수지외피 1종 등 다양한 유형의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다.
- 대상지의 볼라드가 차량진입 방지라는 용도와 부합하지 않게 식별이 어려운 크기이거나 인지도가 지나치게 높은 외관 색상으로 제작되어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 설치간격 또한 촘촘하여 보행자의 이용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석재 재질로 차량파손의 우려가 따르고 있다.



〈석재 유형〉

〈석재 유형〉

〈수지외피 유형〉

》 보호펜스

- 대상지는 넓은 차로와 중앙화단이 설치되어 있으며, 보행자를 위한 횡단보도가 적소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무단횡단이 발생되기 어려운 장소이다.
- 대상지 중 공용버스터미널 전면에 보호펜스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곳은 보행자의 무단횡단 방지 보다는 대기 중인 택시의 대기 질서를 유도하기 위한 목적이 큰 것으로 보여진다.
- 현재 설치된 펜스의 재질과 형태는 용이한 유지·관리를 위해 스테인리스 스틸을 재료로 단위를 이루어 연결한 형태이다. 각 단위의 중앙부에 태안군 심벌마크를 삽입하는 등, 보편적인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재료나 표현 방법에서 격조가 떨어진다.
- 보호펜스가 가로 경관을 구성함에 있어 드러나 보이는 주역이 아닌 기능에 충실한 배경에 속하는 요소임에도 대상지의 보호펜스는 돋보이는 형상을 갖추고 있다.
- 보호펜스는 사용자의 접촉 및 체중 지탱 등이 실제 이루어지는 활동을 감당하는 추락방지용도와 단순히 공간 차단이나 통행 유도를 위한 용도로 구분할 수 있는데 대상 장소에서는 공간 차단 기능의 경량구조가 적합하다.



〈터미널 앞 보호펜스〉

>> 가로 시설물 현황

》가로등

- 대상지는 동일한 유형이 적용되어야 할 구간임에도 설치 시기에 따라 다른 유형이 설치되어 있다. 전체 등주의 색상은 보편적인 색상인 밝은 회색을 채택하고 있으나 원형 파이프 형태, 팔각 테퍼형태, 다단 원형파이프 형태 등 다채롭게 설치되어 있다.
- 등주는 특색없는 형태를 보여주는데 반해 등갓은 화려한 색상을 채택한 유형이 혼재되어 있다.
- 보행등 기능을 보행로 쪽 차로와 동일한 광량을 비추어 과다한 광량으로 쾌적한 보행에 오히려 불편을 주고 있다.
- 기능의 통합 추세에 따라 하나의 등주에 여러개의 설비가 통합 설치된 복잡한 구조를 이루어 오히려 조형성이나 정보전달에 혼선을 주고 있다.

*통합설치된 기능 : 사거리 안내표시, 길안내표시, CCTV주의표시 등



〈태안읍 가로등 현황〉

》 버스 쉼터

- 대상지의 중심부는 유동인구가 많은 가로이면서 보행공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치지점 모두에 버스쉼터가 설치되지 않고 버스터미널 전면 한 곳에만 설치되어 있다.
- 현재 설치되어 있는 버스쉼터는 설치 시기가 오래되었으며 구조부의 결합부 및 마감부분에 부식이 진행되고 있고 판재 등이 변형되어 새로운 쉼터로 교체가 요구된다.
- 버스쉼터에 게시되는 정보요소인 광고판, 지자체 홍보, 버스 운행안내 등이 정렬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정작 이용자에게 필요한 운행안내에 대한 정보전달 체계는 부족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이용자의 연령대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 측면 미흡
- 의자 등 시설물이 버스쉼터 본체와 분리 설치되어 일체감이 미흡하며 주기적인 청소 및 유지·보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 설치 위치가 보행동선을 가로막고 있으며, 전면에 보행이 이루어지고 있어 승차 편의 및 진입 버스 인지가 어렵다.



〈태안읍 버스쉼터 현황〉

>> 가로 시설물 현황

》정보지함

- 정보지함의 외관이 연청계열의 고채도, 고명도 색상으로 되어있어 주변환경과 조화되지 않고 두드러져 보이고 있다.
- 정보지함이라는 용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못하고 있다.
- 정보지함의 높이가 낮아 주로 이용하는 성인이 이용하려면 허리를 숙여야 하는 등 불편을 초래한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도록 함
- 녹이 쉽게 슬거나 파손되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여 유지·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 한 장소에서 모든 정보지를 얻을 수 있는 통합정보지함 형태가 필요하다.



〈태안읍 정보지함 현황〉

》울타리 가림막

- 대상지의 중심부를 제외한 평천교차로 진입부를 비롯한 태안여고 로터리 일대와 환동로 구간의 가로 구간에는 건축물이 들어서지 않은 나대지가 분포하고 있다.
- 나대지는 주로 경작, 방치, 주차공간, 작업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미관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해당 가로의 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건축선 부분의 미관저해 사례〉

>> 가로수 및 중앙화단

》가로수

- 대상지인 동백로와 환동로에는 가로수 높이 10m 내외의 은행나무가 단일 수종으로 식재되어 있다.
- 가로수 식재는 보행로의 폭이 좁거나 가로등주가 설치되어 있는 지점에는 식재되지 않거나 구간에 따라 밀집되는 등 규칙적인 식재 형태를 보이지 않다.
- 가로수의 형태는 줄기 부분이 길고 상단에 잎 부분이 있어 다소 기형적인 형태로 유지되고 있는데 간판을 가리지 않기 위한 전지 방법의 결과로 보이며, 이 상태로 계속 성장하게 되면 간판을 가리게 되어 민원제기가 우려된다.



〈태안읍 가로수 식재 현황〉

》 중앙화단

- 계획 대상지에는 보행로변의 가로수 외에 버스터미널에서 수협 건물에 이르는 도로 중앙로에 중앙 화단이 설치되어 있는데 식재 형태는 2단으로 중앙부에 반송과 하단에는 회양목이 일정한 간격으로 식재되어 있다.
- 반송과 회양목은 사철 푸른 생동감을 보여주고 있으나 보편적인 수종이며, 계절적 변화가 미흡한 면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전지작업 후의 정돈이 경계목인 회양목으로 인하여 방해되는 관리상 문제점을 보이고 있다.



〈태안읍 중앙분리화단 현황〉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 여느 중소도시에서와 같이 건축물의 노후정도와 외관, 건축 규모 및 층수, 업종에 따른 특성에 따라 자극적인 판류간판 위주의 혼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외곽 구역으로 갈수록 보행로와 접하는 지점의 부지를 보유한 업소에 지주형 간판을 무분별하게 설치하여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다.
- 평천교차로 진입부에는 조악한 구조와 형태의 단층건물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곳에 설치된 큰 규모의 판류형 간판은 열악한 건물 입면을 가리는 기능을 하고 있다.
- 중심구역에 새롭게 조성된 고층건물의 경우 전면이 유리창 형태로 견고성이 떨어지는 유리창 위에 불안정하게 설치된 유형을 보여주고 있다.
- 전반적으로 대상지의 중심 구역인 버스터미널 주변의 2~6층 높이의 건물을 제외하면 외관 상태가 낙후된 건물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간판개선을 하더라도 큰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표5〉 조사대상 건축물

111동 중 단층	2층	3층	4층	5층	6층	7층
74동	12동	14동	7동	3동	1동	1동

- 규모가 큰 건물인 경우 건물 또는 블럭별 통합된 간판 유형을 설정할 수 있지만 대상지와 같이 작은 규모의 건물에 제각기 다른 점포가 밀집되어 입점한 경우는 한 건물 내 업소당 간판을 게시할 공간의 배분이 우선되어야 한다.

〈표6〉 조사대상 건축물

111동 중 1점포	2점포	3점포	4점포	5점포	6점포	7점포	8점포	9점포	14점포
60곳	21곳	3곳	5곳	8곳	4곳	1곳	3곳	3곳	1곳



〈대상가로의 옥외광고 실태〉

03 디자인 기본구상

03.1 선진 개선사례/국내 및 국외

03.2 디자인 경향

03.3 연출 및 디자인 방향

>> 일본/도쿄 및 고베 시

>> 보행로 및 녹지

- ① 보행로 : 횡단보도와 맞닿는 연결로의 배리어프리 설계와 여유 있는 보행로 폭의 확보로 블록의 구획구분이 가능해 보행환경을 향상시키고 있다.
- ② 녹 지 : 가로수 식재 공간이 차로와 면한 보행로라는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자투리 공간, 가로등주 고정부 공간에 식재 등 보행환경 개선과 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다.
- ③ 볼라드 : 적소 설치로 수량을 최소화하며, 차량진입 억제 보다는 곡각부에서 안전 운행을 위한 표시 기능을 지니고 있다. (돌출 강조 색상의 부분적 사용)



〈Chiba, Japan〉

》중앙화단 및 식재

- ① 중앙화단 : 좁은 폭의 공간에서 조형미를 살린 적재식 화분의 사용으로 식재에 변화를 주며, 수목 성장에 따른 우려를 해소하는 동시에 차폐와 개방의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
- ② 가로수 수종 : 키 큰 가로수 사이에 작은 관목을 식재한 가로화단을 조성하여 건물의 전면 개방감을 확보하고 있다.



〈Kobe, Japan〉

>> 일본/도쿄 및 고베 시

>> 가로시설물

- ① 파고라 및 쉼터 : 폭이 넓은 보행로의 경우 중간지점 주변 환경과 조화되는 자연소재의 벤치를 설치하여 보행공간에 친근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용도에 적합한 규모와 간결한 형태를 채택하여 도시경관 요소에서 주역이 아닌 배경이 되는 시설물로 기능하고 있다.



〈Kobe, Japan〉

》보행로 및 가로시설물

- ① 보행로 : 보행이 이루어지는 영역에는 편평한 블록을 사용하여 보행의 편리함을 주며, 가로수 식재 계획에는 투수블록을 설치하여 우수의 지면 흡수를 원활하게 하고 있다.
- ② 맨홀뚜껑 : 별도의 상징물의 표현을 배제하고 보도블럭과 동일한 재질과 패턴을 연계하여 보행자에게 시각적 안정감을 주고 있다.
- ③ 보호펜스 : 차로와 보행로의 경계에 설치되는 용도에 적합한 구조를 갖추는 동시에 간결한 디자인으로 개방성을 확보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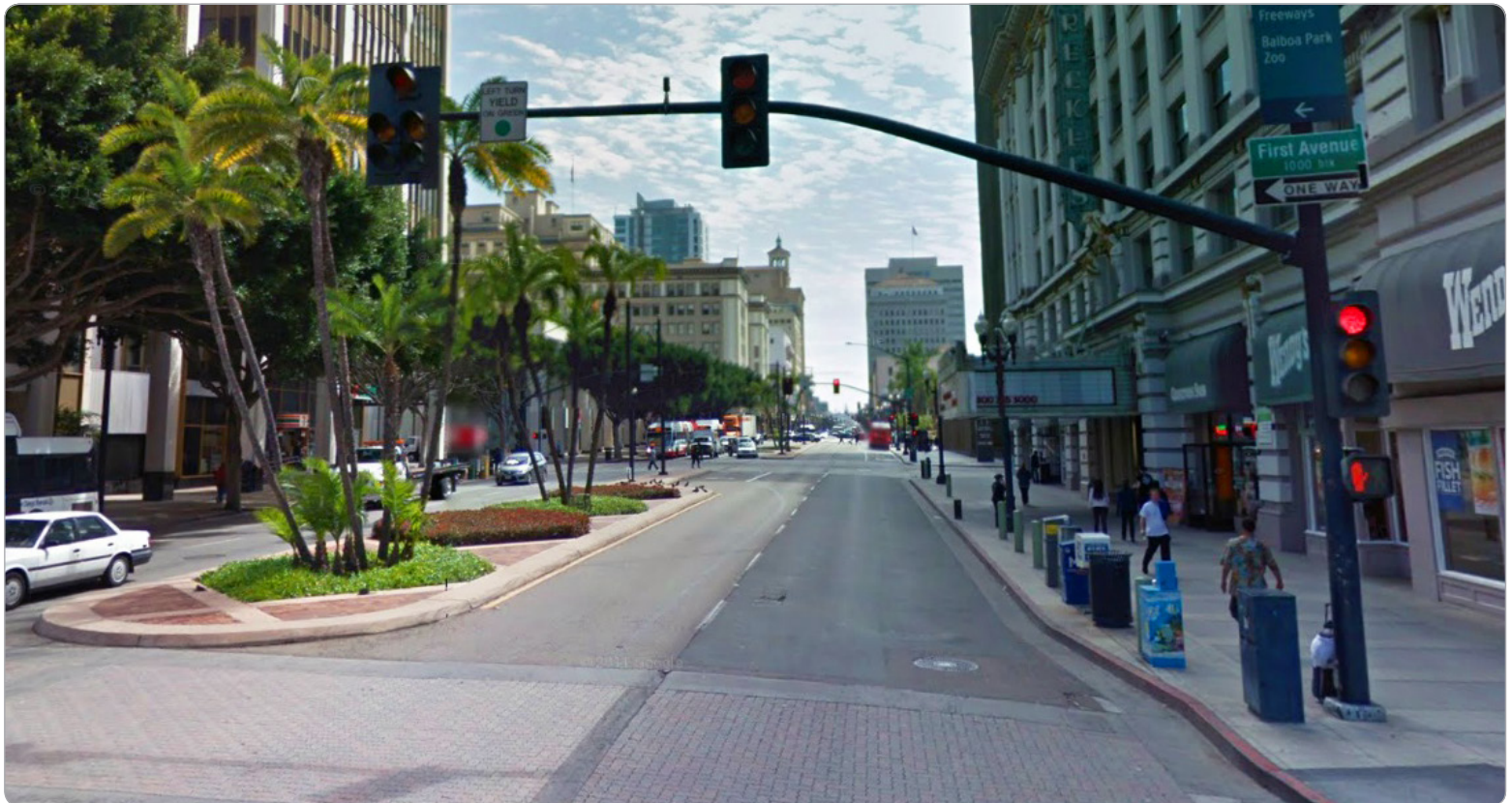


〈Kobe, Japan〉

>> 미국/샌디에이고 및 샌프란시스코

》중앙분리대를 활용한 화단

- ① 중앙분리화단 :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개방성을 고려한 수종을 선택하여 식재했으며, 접근이 원활한 구조로 유지·관리에 편의성을 더해주고 있다.
- ② 가로수 : 상점 전면 구간에는 가로수 식재 대신 가로시설물을 설치하는 등 가로수 식재 방식에 있어 획일성을 탈피하고 있다.
- ③ 횡단보도 : 차로상 횡단보도의 페이빙을 보도블럭으로 연장하여 명확한 구획구분을 하고 있다.



〈San diego, U.S.〉

》 가로수 화분 및 가로등

- ① 가로수 화분 : 보행로 공간이 협소하거나 부분적인 변형이 어려운 포장 상태로 원활한 가로수의 식재가 어려운 장소에서 내구성있는 화분에 가로수를 식재 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다.
- ② 가로등 : 도로여건(차로 및 주행속도) 등 환경의 규모 및 용도에 적합하고 주변 건축물의 스타일과 조화되는 유형의 가로등을 설치하고 있다.



〈San Francisco, U.S.〉

>> 종로구 삼청동

>> 유형별 간판

- ① 채널형 간판 : 간판크기는 줄이면서 업종과 매장 이미지와 조화되는 재질과 디자인을 적용하고 있다.
- ② 접이식 어닝 : 매장 이미지 및 주변과 조화되는 색상을 적용하여 특징이 살려진 어닝간판의 적용으로 밝고 활기찬 상가다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 ③ 입면부 정비 : 노후된 건축 입면을 매장의 특징과 설치되는 간판과 서로 조화를 이루면서 특징이 표현되도록 개선하고 있다.
- ④ 소형돌출간판 : 1층 매장 측면부에 설치되는 소형돌출간판은 작은 크기에 비해 보행자에게 노출 효과가 좋으며 건물이나 블록별 유형화를 통해 간판 개선효과를 얻을 수 있다.



〈서울시 삼청동〉

>> 금산군

》금산읍 간판개선사업 및 전선지중화 사업

- 사업개요 : 금산읍을 관통하는 중심가로인 대상지는 금산인삼의 유통 중심지로서 관련 판매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전국 인삼의 집산지이다. 인삼 약초의 거래와 외부 방문객 등 유동 인구가 많고 옥외광고물의 밀집도가 높기 때문에 시범사업에 적합한 곳이다.
- 2013년 3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8개월 동안으로 339개 업소의 간판 518개를 개선함으로써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다양성을 띤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형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추진 과정에 행정과 지역주민의 소통과 신뢰의 구축을 통해 금산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있다.
- 사업비는 총 6억7,000만원으로 업소당 2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되며 국·군비는 6억 300만원(90%), 자부담은 6천700만원(10%)이 소요되었다.



〈충남 금산군〉

>> 보행 및 교통 공간

>> 보행로/Foot path

- 보행로는 도시의 활력정도를 나타내는 요소로 가치가 인식되고 있으며, 보행공간의 규모에 따라 가로시설물 및 가로수 식재의 방향이 결정된다.
- *좁은 경우 공간을 비우며, 넓은 경우 시설물을 포함하여 차도 측에 녹지라인을 조성함
- 횡단보도와 연결 구간에 경사로 설치, 보행로 블록 표면의 요철 완화 등 보행이 편리한 유니버설 디자인 및 배리어 프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녹지를 조성하여 시각적 · 심리적으로 편안하고 친근한 환경으로 조성하고 있다.
- 구간별 스토리를 부여하거나 블록 재질을 달리하여 디자인을 차별화하며, 동일 구간 내에는 여러 가지 색채 및 패턴의 사용을 지양하고 있다.
- *고채도 색상을 지양하며 표면에 페인트 도장을 제한함
- 설치 시 전체가 평탄하게 하며 이음매나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 부위가 섬세하고 말끔하게 마무리 시공하고 있다.
- *개별 단위가 큰 블록이 사용하여 표면 평탄도를 유지하여 보행에 편리함을 주고 있다.
- 유도블럭은 기능에 따라 선형과 점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되고 있으며, 요철의 정도를 작게하며 노랑색 일변도에서 탈피하고 있다.
 - 점형 : 갈림길 등에 설치하여 보행자의 위치를 인지하게 함
 - 선형 : 보행로에 설치하여 보행자를 유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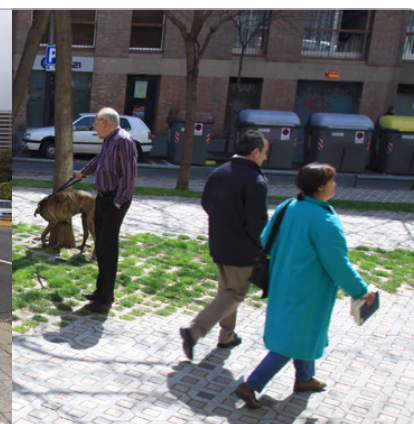
〈Kyoto, Japan〉



〈Chiba, Japan〉



〈Tokyo, Japan〉



〈Madrid, Spain〉

》자전거 도로(Bicycle path)

- 대도시를 비롯한 중소도시에서 지속가능, 친환경 녹색도시를 지향한 도시의 이동수단으로 자전거 도로 조성이 붐을 이루고 있다.
- 자전거 도로는 크게 레저용과 통근(학)용으로 구분되며 적합한 지형, 연중 기후, 구간의 수요, 대중 교통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계획을 수립한다.
- 자전거 도로의 위치가 보행로와 접했거나 또는 차로의 여건에 따라 보호 헬스 등 시설물이나 자전거 도로 폭이 달라지게 설치되고 있다.
- 기성 시가지의 경우 보행로 구간 또는 차로구간을 할애하여 조성되고 있다. 시가지에 설치된 사례에서는 보행로 및 차로와의 공유에 따른 공간문제, 주차장 용도로 활용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교외에 설치된 사례에서는 구간이 단절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회전교차로/라운드바웃

- 기존 평면 교차로에서의 신호대기에 따른 교통량 정체 및 사고발생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방안으로 회전교차로의 도입이 늘고 있다.
- 회전교차로의 설치는 유지관리 비용의 절감, 인접 도로 및 지역에 대한 접근성 향상, 사고 저감, 지체시간 감소로 연료 절감과 배기가스 저감 등의 효과가 있다.
- 회전교차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통행량, 보행자 통행량, 자전거 통행량, 가용면적, 연결 차로의 형태, 주행속도, 교차도로의 기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고 있다.



〈Barcelona, Spain〉



〈Bilbao, Spain〉



〈Seattle, U.S.〉



〈Seattle, U.S.〉

>>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 가로시설물의 설치방법이 지역 고유성이 강조된 외관 위주의 계획에서 설치 장소의 공간 환경에 맞게 적합한 규모와 형태로 적소에 설치되고 있다.
- 기존 가로를 재정비하는 경우 가로시설물의 설치로 인하여 보행 공간이 좁게 계획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로시설물의 규모와 형태가 컴팩트하며 단순한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
- 가로시설물이 가로 경관의 주인공이 되어 두드러지게 보여지기 보다는 도시의 배경으로서 역할이 주어지고 있다.

조형성	기능에 비중을 두어 장식적 요소를 최소화/조형성과 기능성 분리
조망성	시설물로 인한 차폐와 은폐를 최소화하여 시각적인 개방감 확보
최적성	장소에 적합한 형태와 크기를 적용하여 쾌적한 보행공간 확보
연계성	다른 시설물과 연계성을 갖도록 동일한 콘셉트 스타일 적용
보편성	누구나 안전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며, 표준화되고 보편적인 디자인의 적용 및 파급
환경성	친환경성과 내구성을 갖춘 재질 사용, 인공도로 보다 재질색 적용 *지속가능한 견고한 재질과 내구기간 이후 분해되는 재질의 구분 선택
시공성	시설물 설치 위치 및 다른 시설물과의 결합시 섬세하게 시공



〈Madrid, Spain〉



〈Toledo, Spain〉



〈Zaragoza, Spain〉

》 화분/planter

- 보행로의 공간 여건에 따라 보행의 원활함 등을 고려한 크기 및 형태의 차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 차로와 보행로의 경계를 구분하는 고정적인 펜스의 설치 대신 설치 위치를 조정할 수 있는 화분으로 대체하여 가로 개방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고 있다.
- 가로수 식재가 어려운 장소에서 활용이 늘고 있으며, 가로변 점포의 지역주민 참여의 일환으로 화분 가꾸기가 이루어지고 있다.
- 플라스틱 위주의 재질에서 목재, 철재, 토기(테라코타) 등 친환경 소재가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 작은 크기의 단위(모듈)를 조합하는 형태로 소형 경량화 되면서 유지·관리 및 장소에 따른 대응이 수월해지고 있다.



테라코타 <Kobe, Japan>



화강석 <전주시>



화강석 <전주시>



철(steel) <김해시>

>>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 가로수 보호덮개

- 보도블럭 및 가로수와 연속성을 가진 형태와 색상의 디자인이 적용되고 있다.
- 사각형과 원형과 같이 두드러지지 않은 단순한 디자인이 선호되고 있다.
- 보도블럭 재질 및 패턴과 연계되거나 내구성이 우수한 철재가 사용된다.
- 보도블럭과 단차를 없게 하여 보행의 쾌적성 및 유지·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 볼라드/Bollard

- 설치 수량을 최소화하여 보행환경을 쾌적하게 하는 동시에 가로화분대 등으로 대체하여 심미적인 측면을 합당시킨다.
 - 용도별 유형은 차량 진입억제 용도와 보행자의 경계 인지용도로 구분되고 있으며, 단순한 차로 구분용도는 별도의 차선규제봉이 사용되고 있다.
 - 용도에 따른 규격, 재질, 색상 등이 구별되어 설치되고 있다. 차량 진입억제용의 경우 운전자의 시선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차량파손이 최소화되는 재질과 탄력 장치, 반사띠 등이 전제되고 있다.
- *재질에 따라 석재(낮고 평편한 형태), 스틸 및 스테인리스 스틸, 주형(캐스팅), 탄성재, 실리콘으로 구분되며, 단일 또는 복합재질로 구성됨



사각형의 보호덮개<서울시>



원형의 보호덮개 <서울시>



사각형의 보호덮개 <Sapporo, Japan>

- 외관 색상은 고채도, 고명도 색을 지양하며, 부분적으로 반사체(흰색, 노란색)가 적용되고 있다.
- 차량진입 억제용의 경우 설치 간격이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이 수월하며 보행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게 충분히 확보되도록 설치되고 있다.
- 가로등 및 보행등 등 광량이 충분하지 않는 장소에서는 조명을 내장하는 유형이 설치되고 있다.

〈표7〉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의 증진법, 시행규칙의 보행안전시설물의 구조 시설기준

통행확보	보행자의 편리한 통행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설치
식별	밝은 색의 반사도로 등을 사용하여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설치
크기	높이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80~100cm, 지름 10~20cm
간격	간격은 1.5m 안팎
점형블록	0.3m 전면에 시각장애인이 충돌 우려가 있는 구조물이 있음을 미리 알리는 점형블록을 설치



철제(steel) 〈Toledo, Spain〉



석재(화강석) 〈Madrid, Spain〉



석재(화강석) 〈Tokyo, Jap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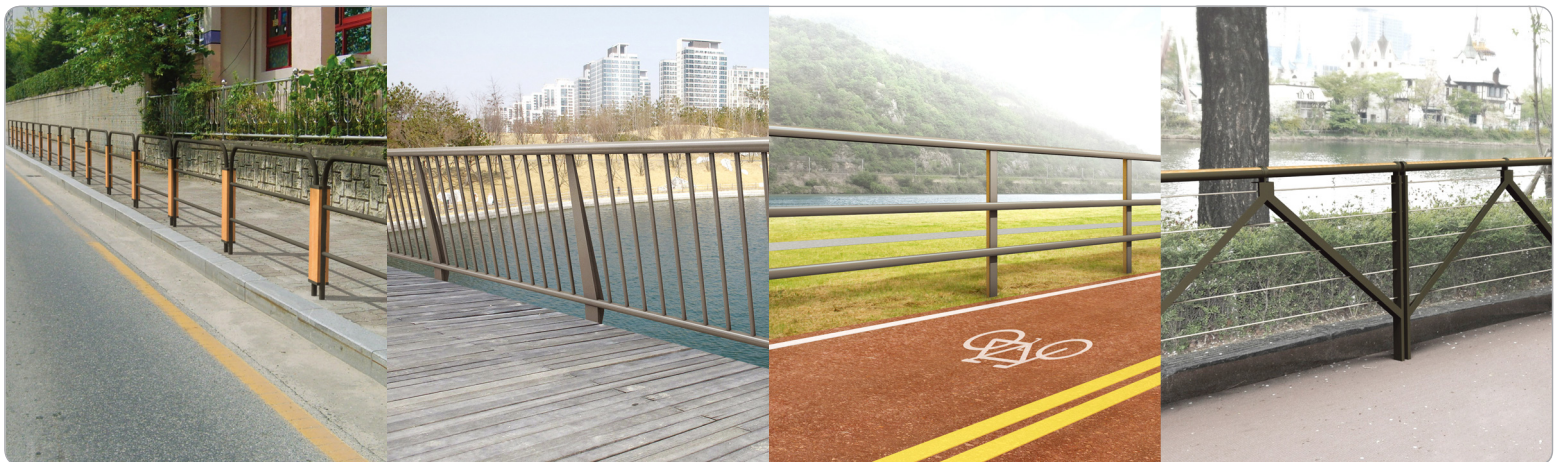


철제(steel) 〈Madrid, Japan〉

>>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 보호휀스

- 가로 공간의 개방성 확대와 시민의 무단횡단 감소 등으로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무단횡단 방지용도의 고정적인 펜스 설치의 감소하는 추세이다.
- 육교나 경사지 경계에 설치하는 추락방지 용도와 단순히 경계를 구분하는 용도가 구분되어 사용자의 하중을 지탱하는 지지정도나 설치 높이가 다르게 적용되어 설치된다.
- 용도에 적합한 규모로 설계되며 장식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여 두드러지지 않게하는 동시에 구조적인 형태로 견고성을 유지하는 추세이다. 노출부분을 적게 하여 배경이 잘 보이도록 하는 간결한 형태가 선호되고 있다.







〈휀스 디자인〉

》가로등

- 기능성 위주와 조형성 위주 유형으로 크게 구분되며, 기능성 위주는 보편적 형태와 외관 색상으로 도시 경관에서 두드러지지 않게 설치된다. 반면 조형성 위주의 가로등은 도시의 주요 구간에 설치되어 도시의 상징성을 부각하는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 주변 가로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된 형태의 디자인과 색상이 적용되어 가로 의 일관성을 유지해주는 기능을 한다.
- 단색 사용을 권장하며 고채도 색이나 원색사용은 지양한다.
- 간결한 형태가 권장되어 등기구에 구체적인 형상이나 자치구 상징물 표현이 지양되며, 고채도 색상이나 원색사용이 지양되어 단색 사용이 권장되고 있다.

〈표8〉 조명기구에 따른 분류

구분	수은등기구			형광등, 나트륨등, 메탈헬라이드, LED
	등근형	고속도로형	폴헤드	
형태				

>>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 가로등주

- 삼거리와 사거리, 교차로와 같이 많은 광량이 요구되는 지점에는 한 등주에 여러 개의 등이 설치되고 있다.
- 가로등주에 다른 설치물을 통합 설치하는 방식이 권장되고 있으나 무분별한 통합으로 혼란이 야기되고 있으며, 공간이 좁은 경우 보행등이 일체형으로 조성되고 있다.
- 설치 지점이 가로수나 표지판의 지주와 규칙적 배열이 되도록 이루어지며, 가로등주의 간격이 기존의 20m 간격에서 30m로 넓어진 방안이 제시되고 있다.
- 가로등주의 기본형태와 부착물을 기초대, 스티커 부착방지대, 국기꽃이, 배너걸이, 등주 및 폴헤드로 구분한다.
- 재질에 따라 철제 가로등주, 스테인리스 스틸제 가로등주, 주철제가로등주로 분류된다.

〈표9〉 가로등주 형태 디자인 예시(서울시 가로환경 디자인 개선 기본계획)

분류	가로등 부착물	설치위치
1	미관용 기초대	지면으로부터 250mm 차지
2	불법스티커 방지보호대	불법스티커 방지보호대는 일체용으로 2m 높이로 지면으로부터 2,250mm 위치에 설치
3	국기꽃이	지면으로부터 2,750mm에 설치
4	배너걸이	지면으로부터 4,500mm에 설치
5	가로등 높이(H) 폴헤드(Pole head)형	가로등주 높이 12,000mm (등주의 높이는 도로폭 및 광원의 광속에 의해 결정되므로 배광균일도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Madrid, Spain〉



〈Bilbao, Spain〉



〈Bilbao, Spain〉

>> 가로시설물/Street Furniture

>> 버스 정류장 쉼터/Bus shelter

- 지역만의 개별적인 디자인이 개발되어 설치되고 있지만 이용자의 차별인지 및 제작 단가 상승 등에 실효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역별 별도 디자인 추세에서 보편적 형태의 디자인에 지역별 색채를 적용하여 차별하는 방안이 대두된다.
- 특이한 형태의 표현 보다는 기능성에 비중을 두어 디자인이 단순화 되는 추세이다.
*형태의 단순화, 색채의 단순화, 기능의 단순화, 정보의 최소화
- 전체 구조는 보편적인 색상이 적용되며, 버스정류장 픽토그램 등이 표시되는 기둥부에 포인트 색상을 사용하여 기능의 인지성을 제고하고 있다.
- 승차 대기 중인 승객 및 차내 승객과 운전자의 시각에서의 이용 편의가 고려되며, 이용자 특성에 따른 의자 및 노선표 등 정보전달 유형이 설계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다.
*터치스크린을 통한 디지털 정보제공(전화, Wi-Fi, 안내시스템, 광고) 기능의 승차대와 폴사인
- 설치 및 유지관리, 위치 이동 설치가 용이하며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에너지원의 채택 및 친환경 경소재 사용이 보편화 되고 있다.

색채	·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않는 고채도, 고명도 색상의 사용은 지양한다.
형태	· 운전자와 이용 승객이 서로의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개방성을 고려하여 설계한다. · 상징적 요소를 줄이고 중앙차로와 일관된 디자인으로 버스승차대의 인지성을 높이고 단순화된 표준디자인을 계획한다. · 보도폭등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재질	· 승차대 벽면은 개방감 확보를 위하여 투명재료를 사용하며, 승차대 본체는 가볍고 내구성이 뛰어난 재료를 사용한다.
설치	· 시설물의 마감부위가 미려하도록 설계하며, 타 용도로의 사용을 불가하도록 한다. · 공장제조를 원칙으로 하여 현장 도장을 없애며 경량화를 통해 현장 조립이 불가피한 부분의 설치를 최소화한다.
기능	·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많은 기능을 지양하여 기능과 형태를 단순화하며,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을 설치한다.

》 정보지함

- 정보지 종류와 증가에 대비하여 내부 수납 확장이 가능하도록 설계된다.
- 규모가 작은 가로시설물로서 보행자의 활동에 장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한 형태로 보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설치되고 있다.
- *다른 시설물에 덧붙여 설치됨

》 울타리

- 전원 지역에 적합한 유형은 철제 등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으나 도심 공간에 어울리는 유형의 개발이 미흡하다.
- *전원형의 경우 연두색 계열의 색상이 활용되나 도시형은 두드러지지 않는 색상이 요구됨
- 조립 및 설치와 해체가 수월하여 재활용이 가능한 구조의 저비용 설치가 가능한 디자인이 요구된다.
- 내부가 주거용 건축이나 나대지 등의 경우 규모나 높이가 과다하지 않으며, 내부가 반 투시되는 유형이 적합하다.
- 벽면에 현수막이나 광고물의 부착 등 옥외광고물 게시 용도로 활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Tejo Remy's Fence〉



〈Green Fe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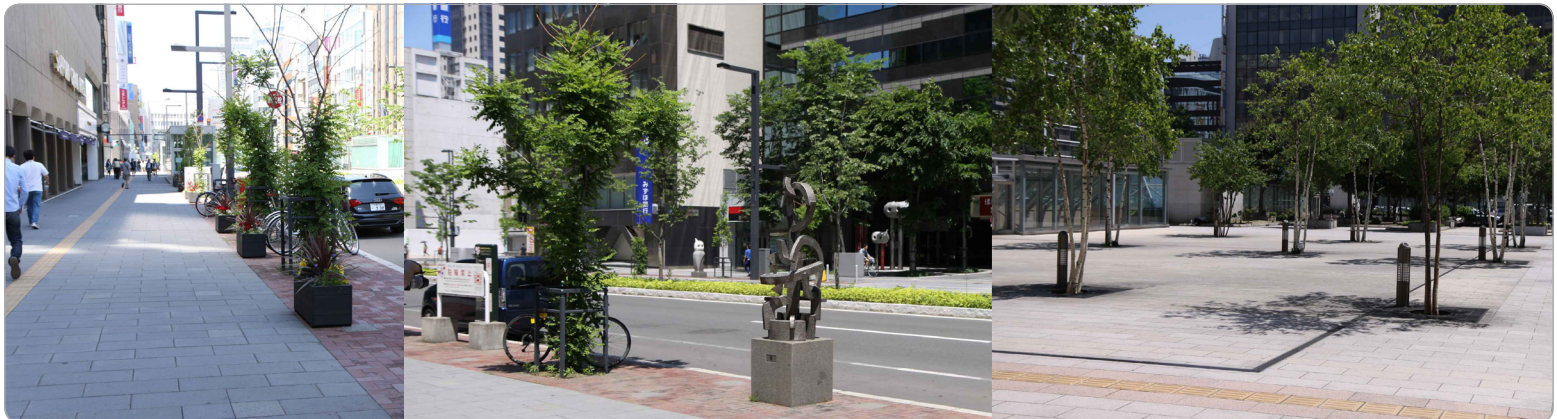


〈Art Fence〉

>> 가로수

>> 가로수

- 보행로에 가로수의 무조건적인 식재에 대한 효용성 문제가 제기 되고 있다.
*도심지역의 공간이 충분한 넓은 가로공간에서는 권장되고 있지만 녹지공간이 배후에 확보되어 있는 지방 소도시의 좁은 보행공간에서는 가로화분 등으로 대체됨
- 성장이 활발한 수종을 식재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도출되고 있으며, 지주구조의 가로등, 표지판 지주 등과의 규칙적인 배열이 요구된다.
*빈번한 전지작업, 가로수 보호판 및 보도블록 파손, 상가의 간판 가림 현상
- 국내 가로수 수종은 은행나무, 양버즘나무(플라타너스)가 일반적이었으나 최근에는 지역 환경에 맞게 왕벚나무, 느티나무, 배롱나무, 이팝나무, 메타세콰이어, 팽나무, 대왕참나무, 중국단풍, 회화나무, 복자기, 무궁화 등 다양한 수종이 식재되고 있다.



〈Sapporo, Japan〉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

- 타 지자체에서 수립된 가이드라인을 답습하는 수준으로 지역 특성이 제대로 표현되지 못하고 있다.
- 행정기관의 개입보다는 최소 면적만을 제시하는 면적 총량제, 주민자율제 등이 권장되고 있다.
- *사적 영역이면서 공적인 성격의 영역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이루어지는 대상임
- 지자체 옥외광고물 설치규정에는 1업소 1간판원칙이나 상업구역 등 규제완화구역 건물 유형에 따라 1업소 2간판이 허용되는 추세이다.
- *가로형+돌출, 가로형+소형돌출, 가로형+연립간판, 가로형+(연합)지주간판
- 기존의 판류형 대신 문자형(입체형)이 제시되고 있으나 건물의 층수에 따라 혼용되고 있으며, 건물 입면의 노후상태에 따라 판류형이 적합한 곳도 있다.
- 지나친 간판의 획일성 일변도로 상권이 위축되는 부작용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디자인이 제시되는 설치규정 대신에 설치 수량과 면적은 제한하고 색상제한은 완화하여 간판의 지나친 침체를 막아 상권에 활력을 유지하고 있다.
- 입점수가 밀집된 건물에서 부착 공간이 부족한 경우 연립간판을 허용하여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다.



〈Barcelona, Spain〉



〈Hotaru, Japan〉



〈Barcelona, Spain〉

>> 주제 및 개념

"편안함과 아름다움이 있는
고품격 해양도시"

서해에서 느끼는 격조있는 여유와 활력

· 모티브 : 꽃과 바다, 사람과 자연, 친환경, 편안함



>> 디자인 기본방향



>> 가로시설물 디자인 연출전략

>> 가로시설물 디자인 연출전략

견고 싶은 친근한 공간

- 보행 공간 확보와 구간별 다양성이 있는 활력 공간으로 조성

모두가 편안한 유니버설디자인

- 장애인부터 노약자, 일반인에 이르기까지 편안함을 제공

친환경 해양이미지 연출

- 해양풍의 경쾌한 색조의 사용, 해양 및 해저발굴유물을 소재로 채택

절제된 미니멀 디자인 추구

- 기성 시가지의 공간 구조에 적합한 절제된 규모와 수량으로 조성

고품격 세련된 이미지

- 기반 시설을 우선으로 소재 및 가공방법을 고급화하여 고차원 이미지 구현



〈Madrid, Spain〉



〈Barcelona, Spa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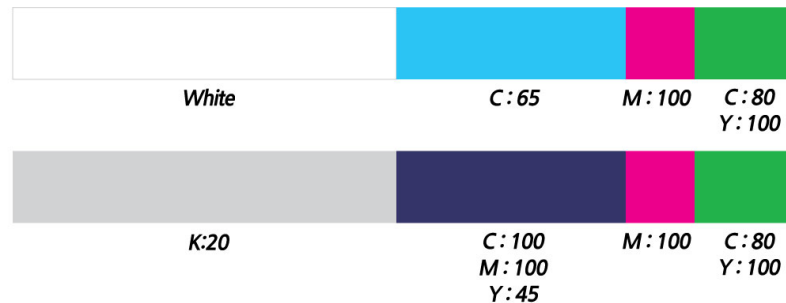


〈Kyoto, Japan〉

>> 색상계획

》 기존 가로의 색상적용은 건축물의 입면 등 주요기반이 되는 부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어닝간판, 가로시설물 등에 활용하여 적용한다.

옥외광고물의 사용색상은 별도로 제한하지 않음



- 주조색 : 백색 또는 연회색(K20%)
- 보조색 : 스카이블루 또는 코발트블루(C65, C100+M100+Y20%), 그린(C80+Y100%)
- 강조색 : 오페라계열(M100+Y40%)



04 디자인 적용

04.1 부분별 디자인

04.2 전체 디자인

04.3 조감도

>> 구역설정

>> 시범구역설정

대상가로의 건축물은 상태 및 업종에 따른 밀집도 등이 편차가 나타나기 때문에 세개의 시범을 선정하여 보행로의 패턴 등 디자인으로 구분 짓는다.

① 1구역

범위 : 태안버스터미널 전체동

특징 : 노후화된 공공건축물에 많은 상가가 밀집되어 있고, 태안군민 뿐만아니라, 외부인의 출입이 가장 빈번함

② 2구역

범위 : 태안버스터미널 맞은편, 4층이상의 건물 6동

특징 : 의료업, 서비스업, 상업이 주를 이루고, 건물들이 최신 건축물로 이루어져 비교적 정돈되고 깨끗함

③ 3구역

범위 : 군청오거리 근처에 위치하며 3층이하의 건물 5동

특징 : 일부 노후화된 건물에 외벽상태가 좋지 못하고, 상업용도 건축이 주를 이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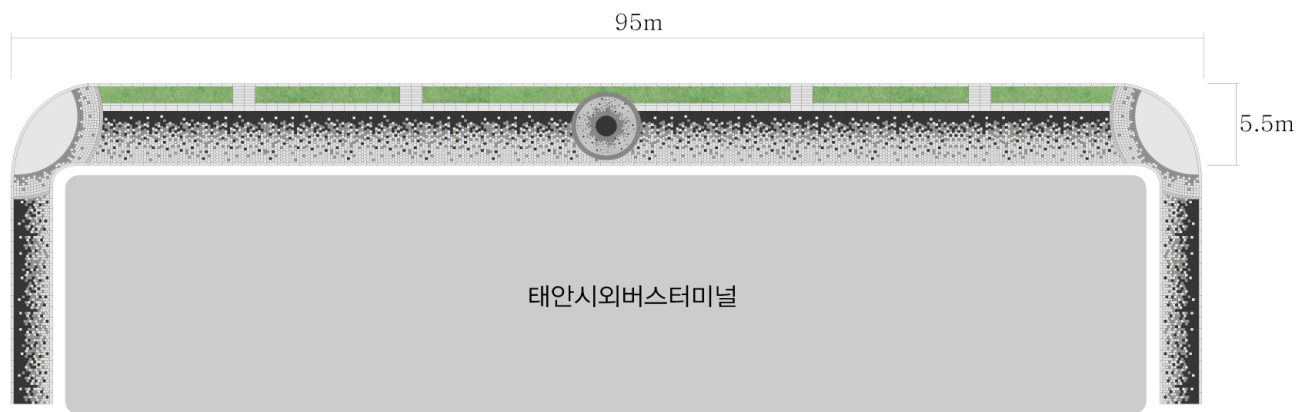
>> 보행로/보도블럭

>> 디자인 컨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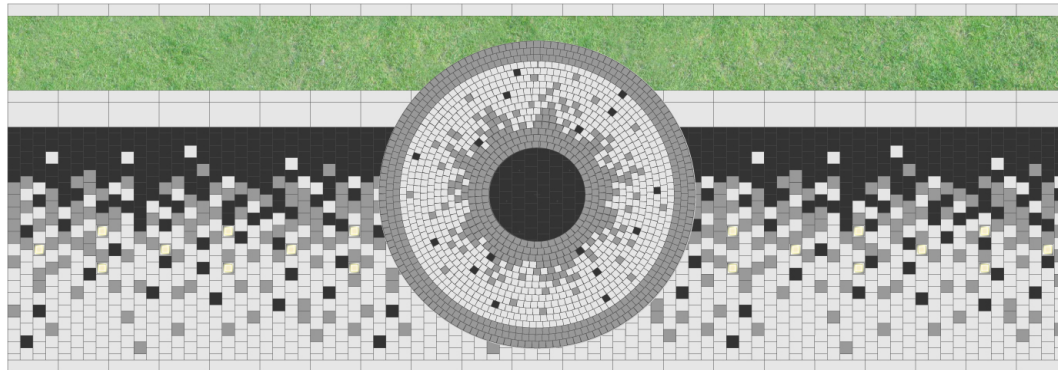
- 지역 상징성 : 해양도시 태안의 기반이 되는 서해바다를 모티브로 하여 파도와 물결을 형상화를 통하여 활력 있고 청정한 가로를 표현하였다.
- 기능성 : 대상 가로의 주요 미관요소로 시설물의 설치를 최소화하여 보행자의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 보행로의 폭이 넓은 지점에는 보행 공간과 가로수 및 녹지를 공간을 동시에 조성하여 보행의 편의성과 녹지의 유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보도블럭에 유도등을 매립하여 야간 보행에 도움을 주며 야간경관을 형성하도록 하였다.

>> 디자인 1안/ "절제된 움직임"

- 디자인구상 : 해안선을 패턴화하여 바다와 육지가 만나서 조화되는 화합의 의미를 리드미컬하게 표현하였다. 사용색상은 색상계획에서 주조색으로 제시된 백색(연회색)과 회색 외에 진회색 등 무채색을 단계별로 배치하여 차분하면서 격조 높은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다.
- 평면구상 : 전선지중화 사업을 계기로 보다 넓어진 보행공간 차로편에는 녹지띠를 배치하여 보행구간과 경계를 두되 중간지점에 녹지띠와 공유하는 원형 공간을 배치하여 경직성을 해소하고 있다.
- 적용구역 : 1구역 (태안 시외버스터미널)
- 사용블럭
 - 규격 : 전체 200×200×60(80)mm, 중앙부 100×100×60(80)mm
 - 재질 : 투수기능 및 재활이 가능한 고품격 친환경 소재인 인공석재로 안료 착색이 아닌 천연골재를 사용한 색상 연출로 백화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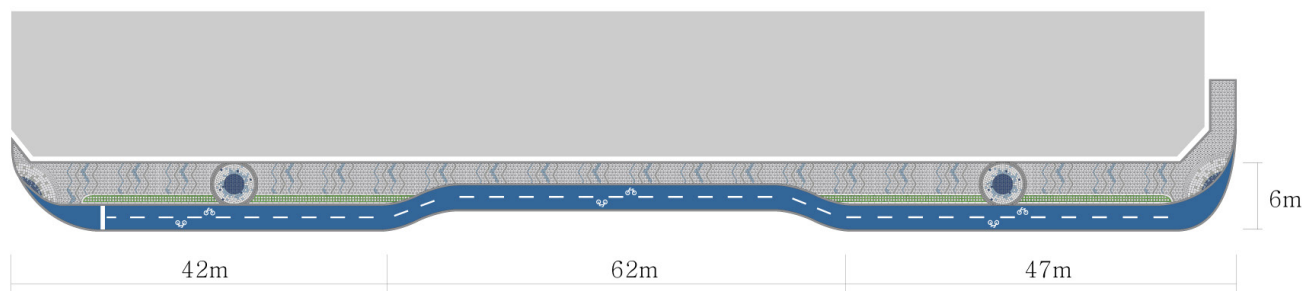
Detai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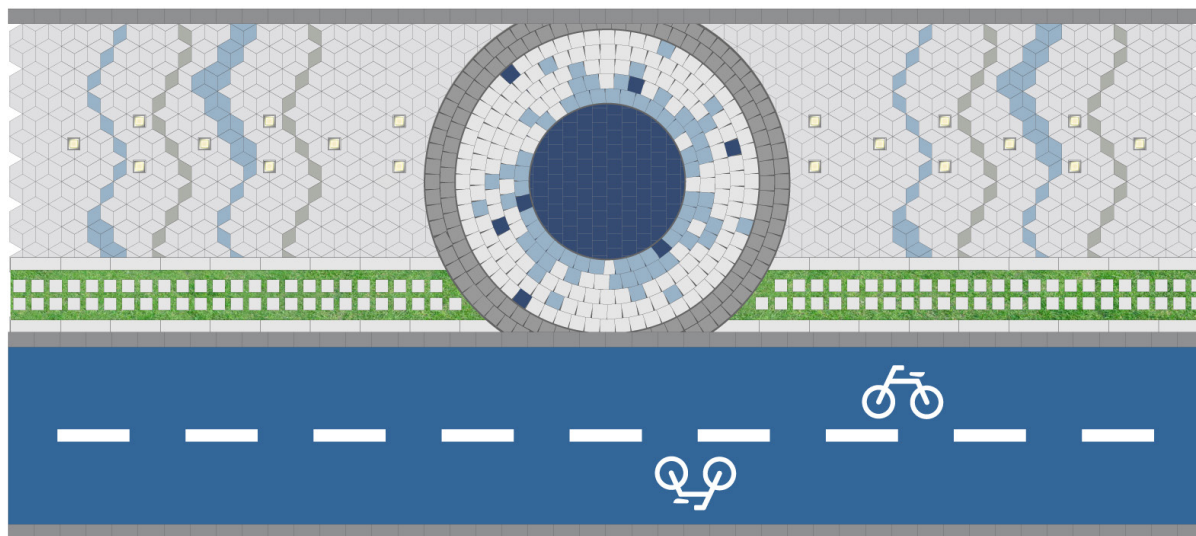
>> 보행로/보도블럭

>> 디자인 2안/ "바다의 파동"

- 디자인구상 : 파도의 파장 형태를 패턴화 하여 바다와 육지에서 시작되어 생명의 파동으로 이어지는 의미를 표현하고 있다. 사용색상은 연회색, 중간회색, 연청색을 사용하며 원형 및 경계부에는 연회색, 연청색, 군청색등 계열색을 3단계로 적용하여 차분하면서 격조 높은 이미지를 구사하고 있다.
- 평면구상 : 1안과 마찬가지로 차로편에는 녹지띠를 배치하되 가로수 식재가 아닌 개방된 형태의 녹지를 적용하며 화분(플랜터) 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되었다. 보행공간의 폭이 넓은 지점에는 녹지띠와 공유하는 원형 공간을 배치하여 경직성을 해소하고 있다.
- 적용구역 : 2구역 (삼영빌딩 외 6개동)
- 사용블럭
 - 규격 : 전체 마름모형 200×100×60(80)mm, 중앙부 200×200×60(80)mm
 - 재질 : 투수기능 및 재활이 가능한 고품격 친환경 소재인 인공석재로 안료 착색이 아닌 천연골재를 사용한 색상 연출로 백화방지 등의 효과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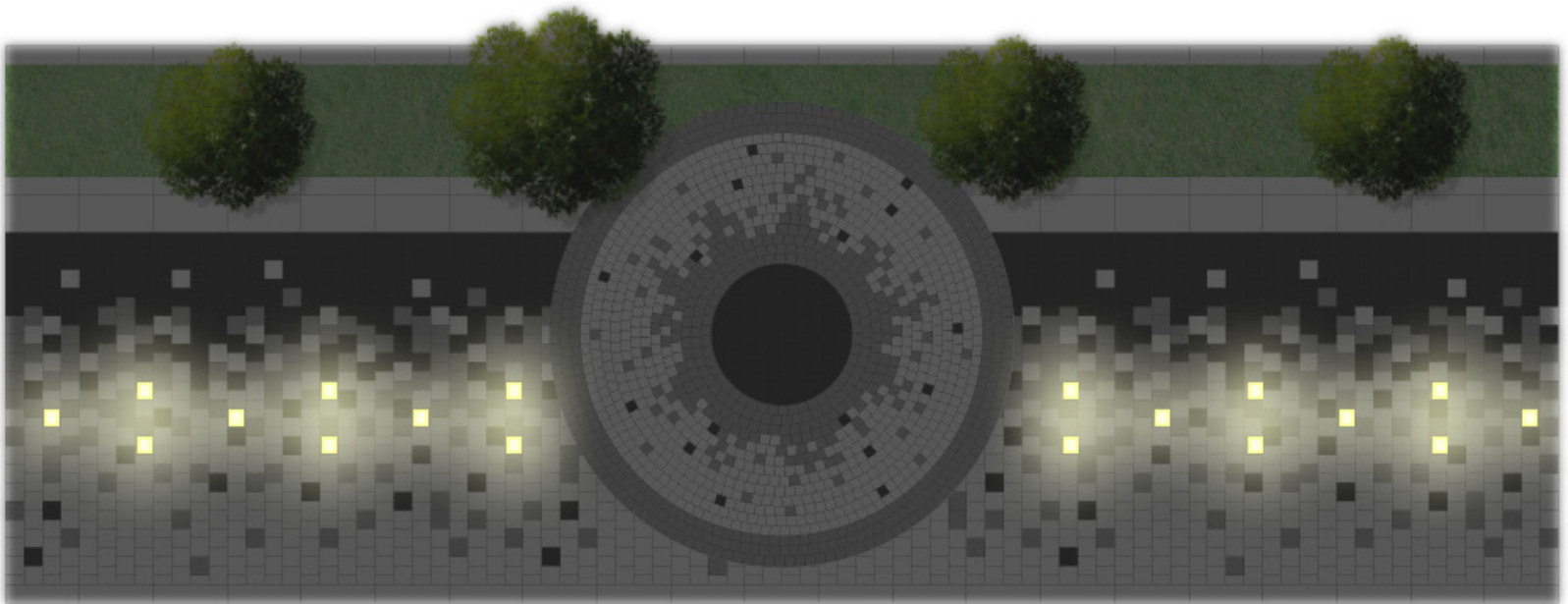


Detail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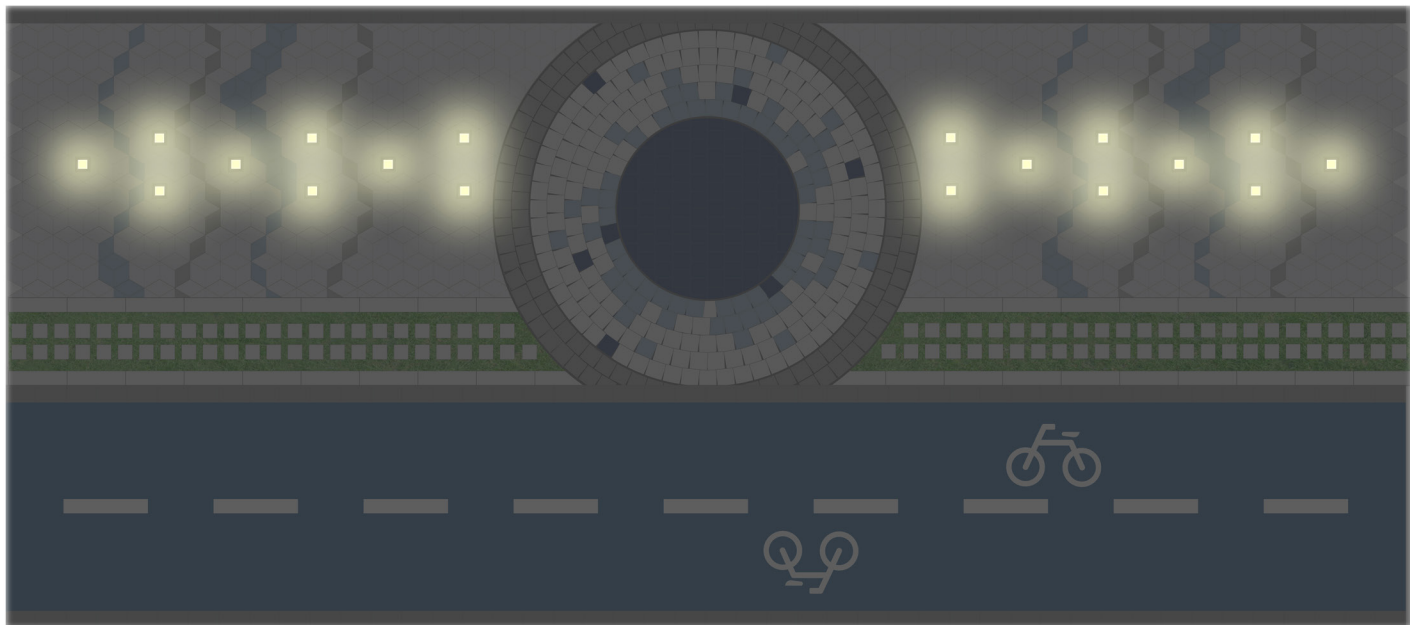


>> 보행로/보도블럭

>> 보도블럭 디자인 1 (야간)



» 보도블럭 디자인 2 (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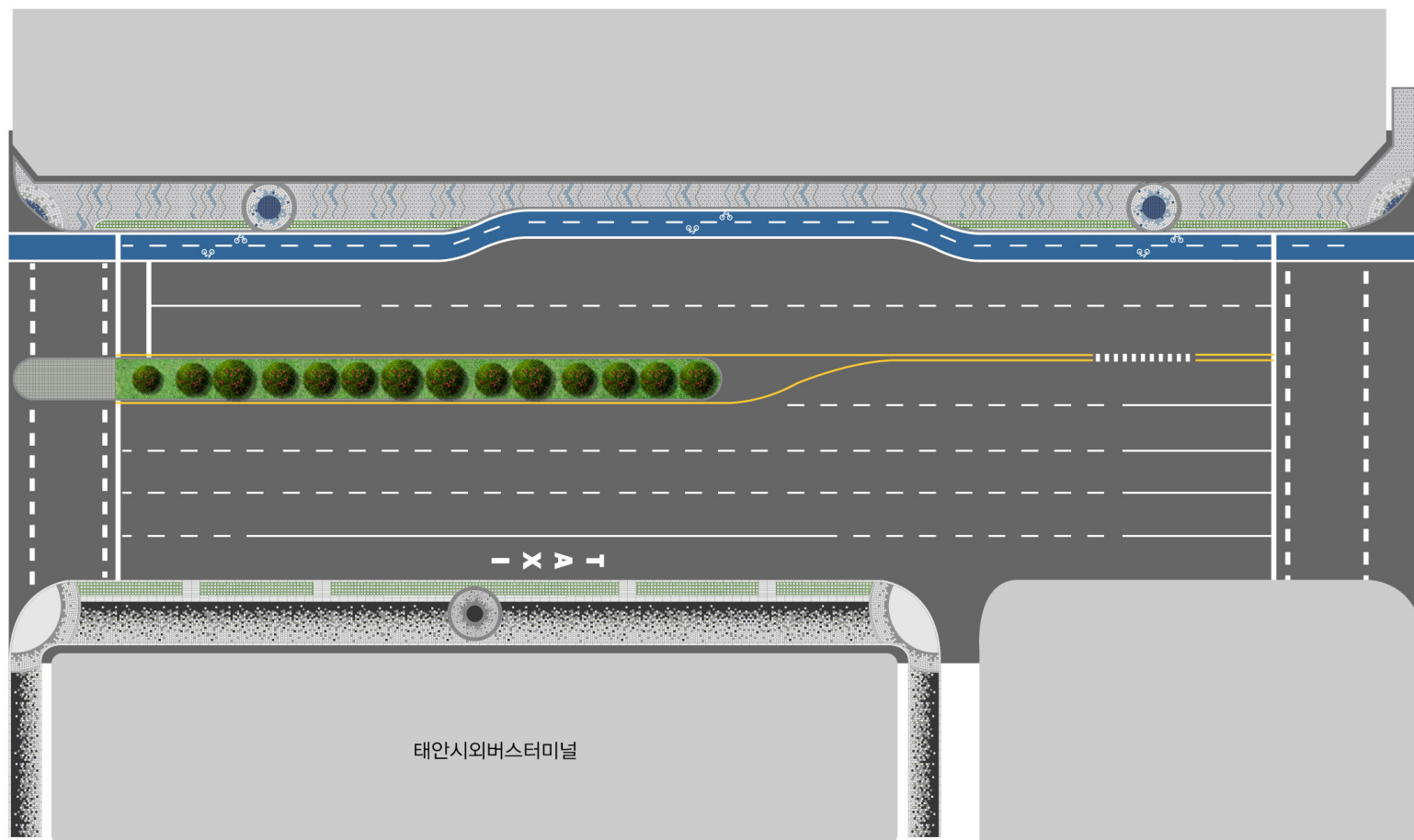
>> 자전거 도로

>> 공간구상

- 대상가로는 왕복 6차선의 여유로운 공간을 가지면서 불규칙한 폭을 보이는 보행로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보행로가 아닌 차로의 일부를 자전거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터미널 전면 차로 방향에는 택시 대기 등이 이루어져 자전거 도로로 전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맞은 편 차선 중 1개 차선을 활용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 해당 구간의 도로 구조가 연속성을 띠지 않고 단절되고 있으며 보행로와 맞닿은 주차포켓으로 인하여 선형이 고르지 않은 단점을 갖고 있다. 여기에 군청입구오거리에 라운더바웃이 조성될 경우 별도의 연속성이 없이 단절이 가중되는 문제가 예측된다.

>> 부가 설비

- 해당 차로의 주행 제한 속도가 시속 60km로 보행로 및 차로와의 경계에 안전 휀스는 불필요하며, 차로와의 경계에 차선을 구분하는 방지턱이 설치되어야 한다.
- 자전거 도로로서 규모를 갖추기 위해서는 평천 교차로에서 태안여고 로터리에 이르는 2.4km 구간이 필요하며 이중 차로 폭이 4차로로 좁은 군청 진입로부터 태안여고 로터리까지의 구간에서는 1차로에 해당하는 부지의 확보가 필요하다.
- 해당 구간의 연결구조가 단절이 많기 때문에 안전한 자전거 도로 운영을 위해서는 자전거 전용 신호등 등 전용 시설의 설치가 요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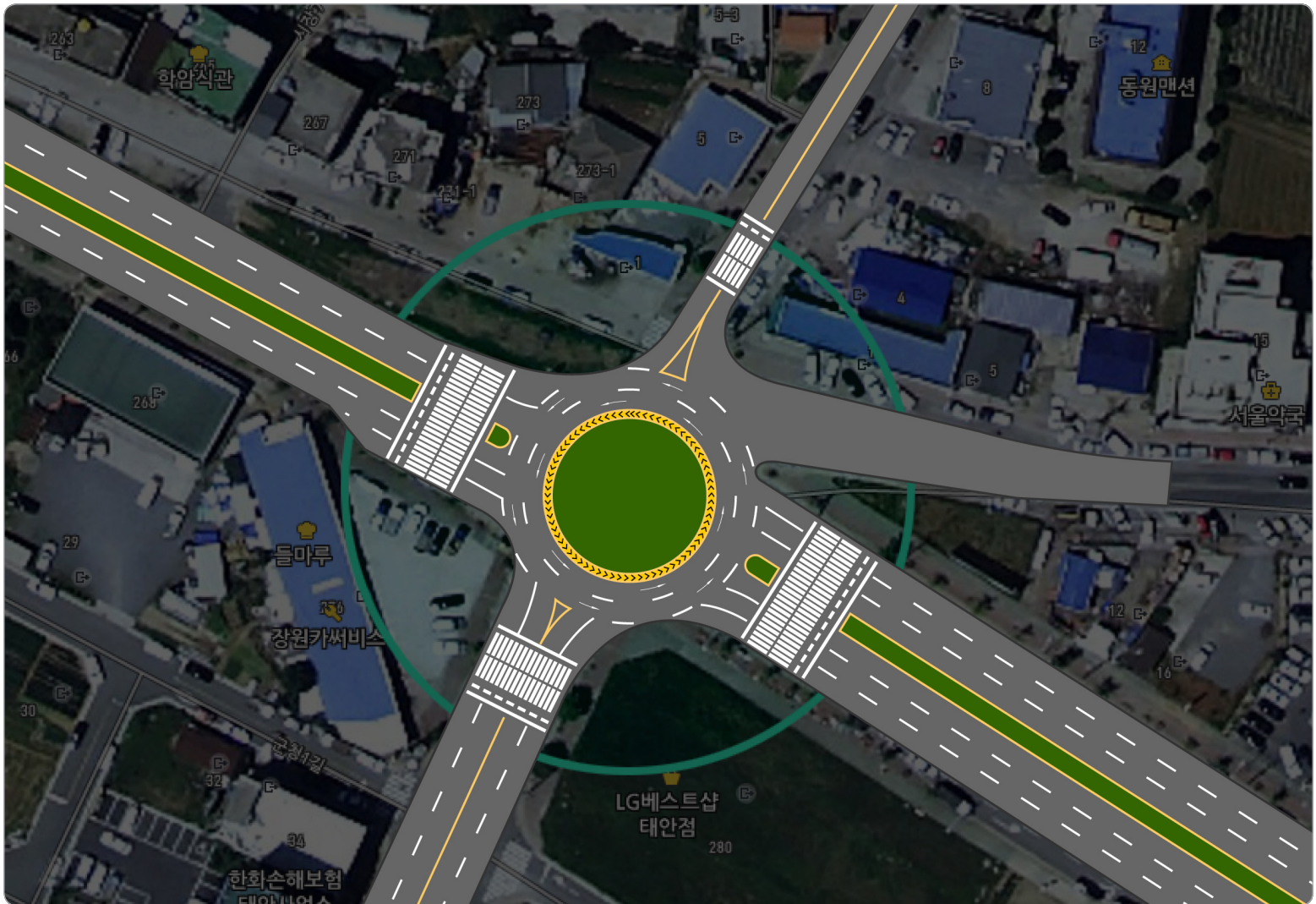


>> 회전교차로/라운드바웃(Roundabout)

>> 설치장소 및 현황

- 회전교차로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소는 대상가로인 동백로에서 군청방향으로 분기를 이루는 군청 진입로 오거리이다.
- 이 지정은 해당 가로 중 상징성이 돋보이며 조형물이 아닌 절제된 형태와 규모로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랜드마크로 기능하게 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
- 오거리를 이루는 차선은 간선축을 이루는 동백로의 터미널 방향은 7차선(4/3), 군청로 방향은 4차선(2/2), 샘골로 방향은 2차선(1/1), 동백로와 샘골로 사이의 동문1로는 중앙분리 화단이 형성된 상태로 2차선(1/1)로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 대상 가로의 교통량은 출근시간대에 군청방향으로 집중되나 그밖의 시간에는 순조로운 흐름을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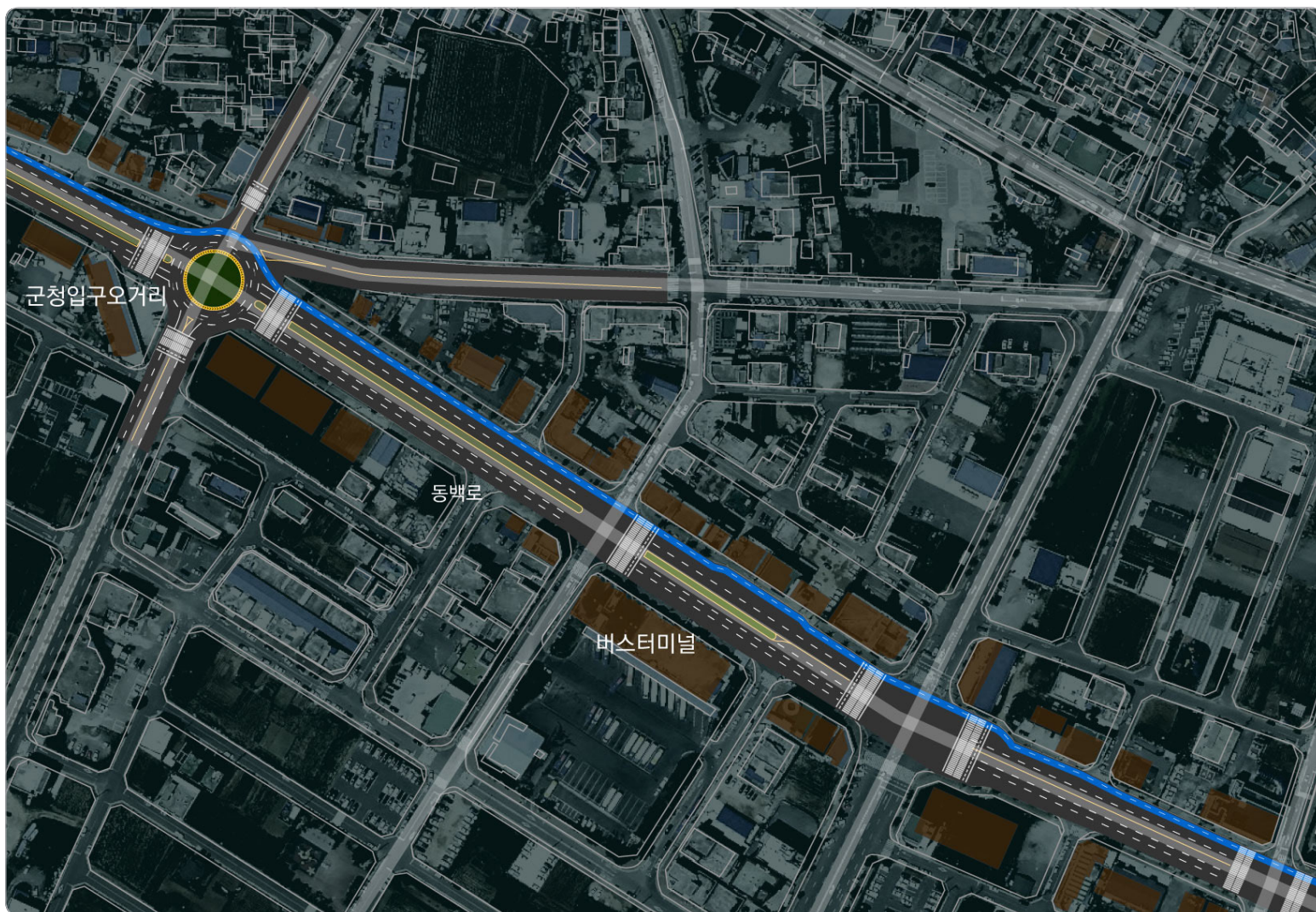
>> 회전교차로/라운더바웃(Roundabout)

>> 설치에 따른 제약

- 회전교차로 설치에 있어 기본적인 규모인 편도 2차로의 적정 회전 구간의 중심부는 규모 직경 40m의 공간이 필요하며, 기본적으로 삼골로에서 간선도로인 동백로로 진입부의 공간 정비 및 보행로 조성 등 노선 형태의 재 설계가 필요하다.
- *삼골로에서 진입은 점포 앞 도로(120m)를 경유 한 후 합류되는 구조이며 점포 앞은 보행로가 설치되지 않고 도로와 직접 변하고 있음
-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유지 및 개인소유인 주변 부지의 매입이 필요한데 해당 부지는 도로변에 위치하였기 때문에 고가의 매입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간선축을 이루는 터미널 측 차선이 7차선에 이르기 때문에 교통량이 집중되는 출퇴근 시간대에 병목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
- 회전교차로 특성상 트레일러와 같은 대형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한 제약이 있다.

*라운더바웃(Roundabout)이란?

도로의 평면 교차 방식 중 하나이다. 1960년대 영국이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처음에는 로터리(미국식)로 불렸지만, 최근에는 회전교차로라고 부른다.



〈자전거 도로 및 라운더바웃 구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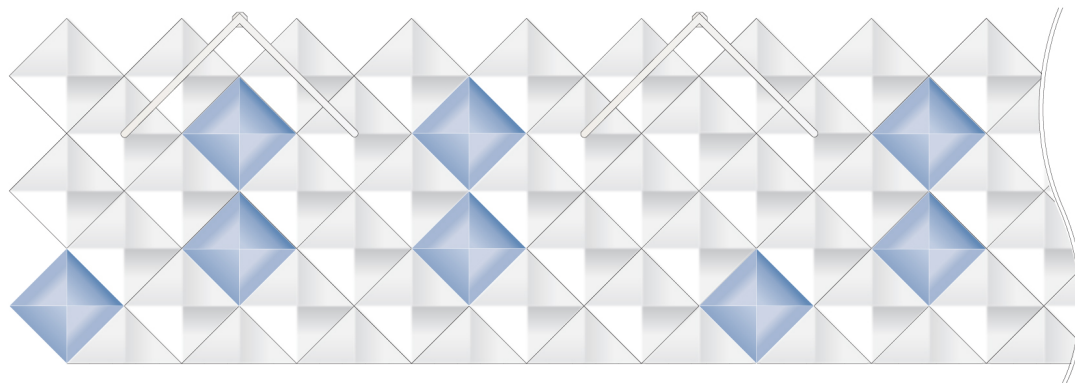
>> 버스터미널 파고라

>> 기존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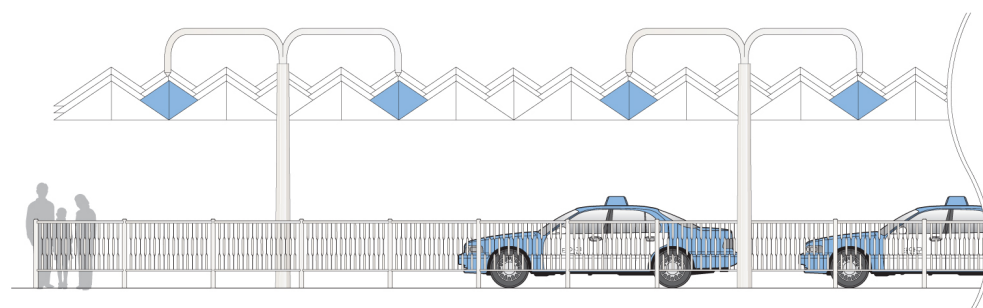
- 대상 가로 동백로의 핵심 장소인 버스터미널 좌측 택시 승차장에 설치된 비가림 시설이 노후됨에 따라 기능성과 조형성을 갖춘 어반폴리 개념의 시설물인 파고라의 설치 계획이다.
- 지역상징성 : 서해의 파도를 모티브로 한 사각고깔 형상의 유니트(정사각형 큐브를 사선으로 분할)가 연속으로 나열되는 형태로 활력있는 거리를 상징성 있게 표현하고 있다. 색상은 해양풍의 대표 색상인 백색을 적용하여 가로 전체가 연속되는 요소로 작용되게 하였다.
- 기능성 : 터미널 이용자에게 일광 차단 및 비가림 편의를 제공하여 버스터미널 및 입점 상가에 대한 편의성 제고를 기대한다.
- 구조를 이루는 프레임과 캔버스 재질인 외피로 노후가 되면 교체가 가능하게 하였고 중간 중간에 폴리카보네이트 재질의 투명 고깔을 설치하여 채광 기능을 더해주고 있다.
- 보행로의 경사면에 따라 파고라의 높이도 달라지게 배치하여 맞은편에서 파고라 전체가 조망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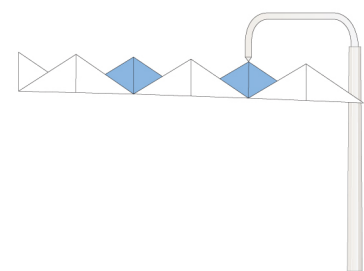
〈태안 버스터미널 파고라 현황〉



Top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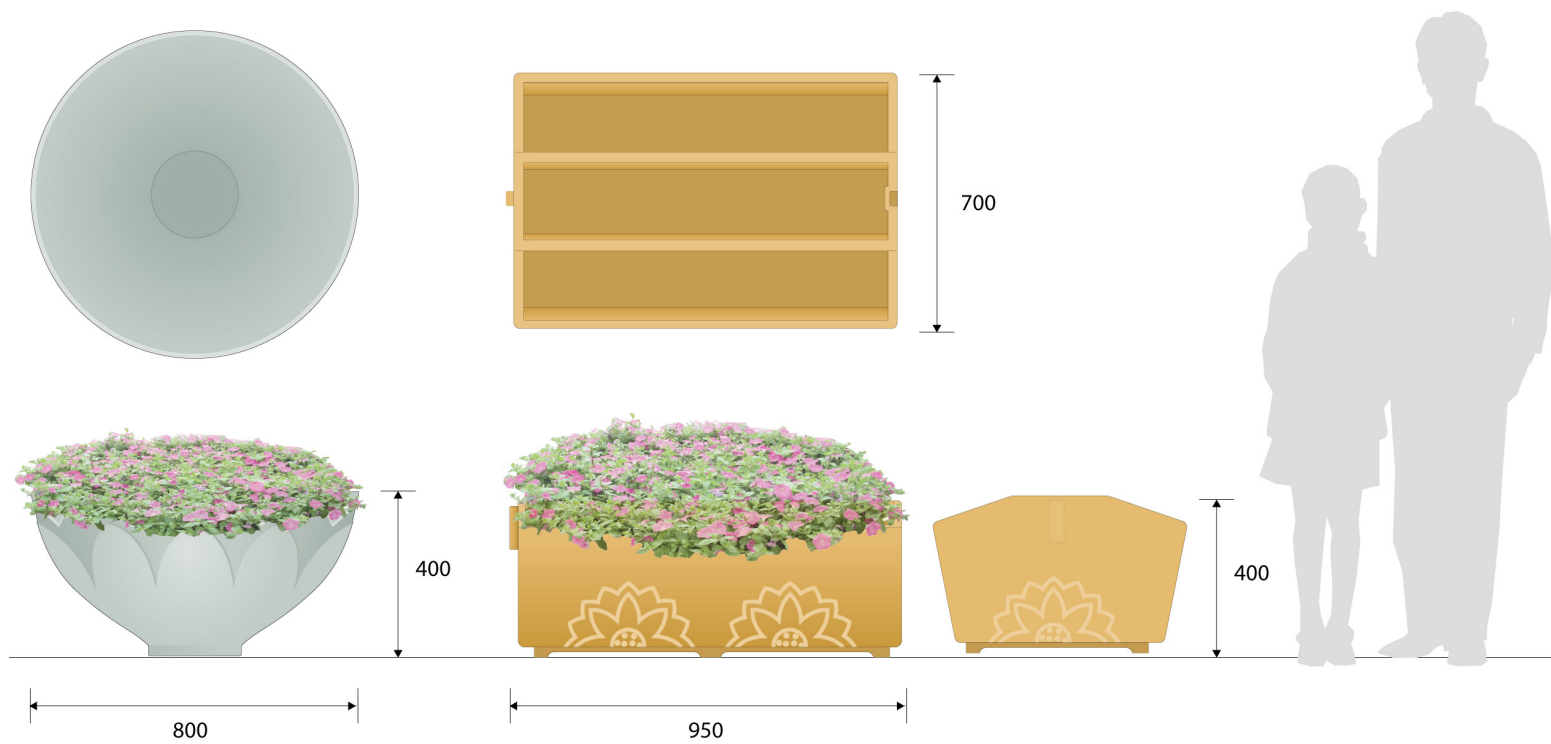
Front View



Side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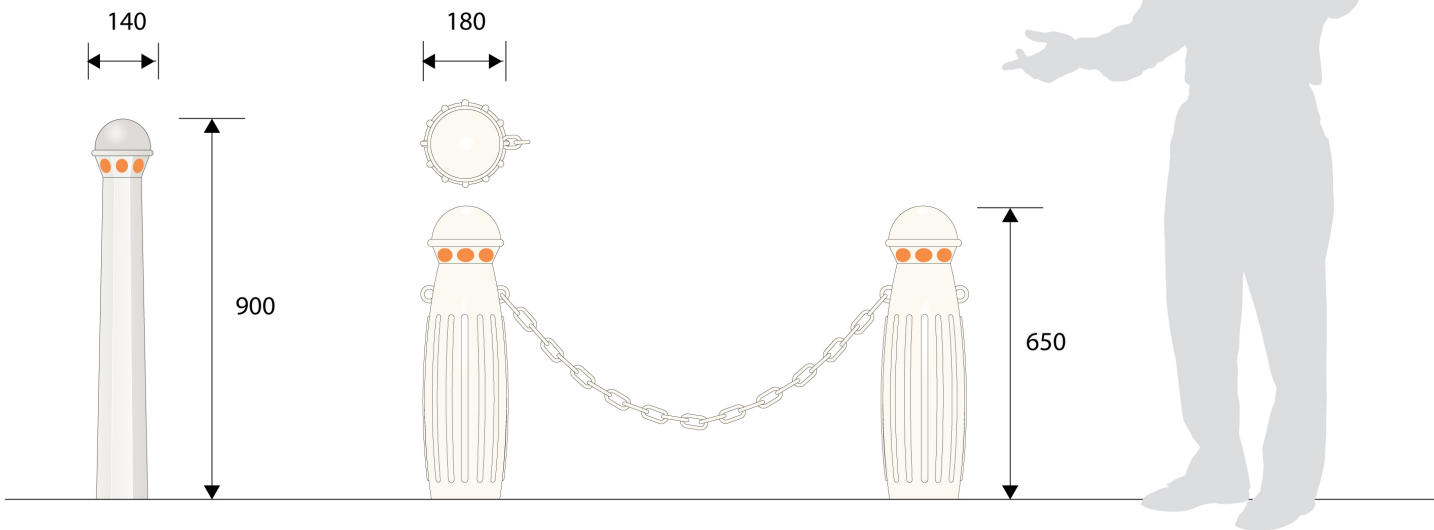
>> 화분

- ① 지역상징성 : 태안군의 고유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상적 소재인 태안 해저출토 유물인 도기류의 재질 및 문양을 모티브로 활용 하였다.
 - 1안 ▶ 태안해저 출토 유물 중 연화문이 새겨진 사발을 모티브로 테라코타 재질로 재현하였다.
 - 2안 ▶ 사발에 사용된 연화문을 모티브로 하여 모듈형태로 연속하여 조합할 수 있는 사각 형태의 디자인이다.
- ② 기능성 : 1안과 2안 모두 보행로를 차지하는 폭이 50cm 미만의 소형으로 규모 및 중량감이 적어 쾌적한 보행환경을 유지하는 동시에 유지 및 관리에 효율적인 형태이며, 차로와 보행로를 구분하는 휠스를 대체함으로써 가로공간에 개방감을 부여하고 있다.
2안의 경우 설치 장소의 공간특성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 ③ 설치장소 : 화분의 설치 장소는 가로수의 식재 위치와 중복되는 것을 피하여 대상 지역의 중심부인 상가 밀집지역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가로수 없는 가로 구간을 조성한다.
가로수는 화분으로 대체하여 간판 가림으로 영업상의 불편을 겪었던 상점의 불만을 해소시키는 방안으로 활용할 수 있다.
- ④ 주민 관리 : 상점 앞 화분은 초기 조성 및 모종 공급은 군청에서 지원하며 물주기 등 청소 관리는 상점이 주체가 되어 이루어지는 주민참여방식을 제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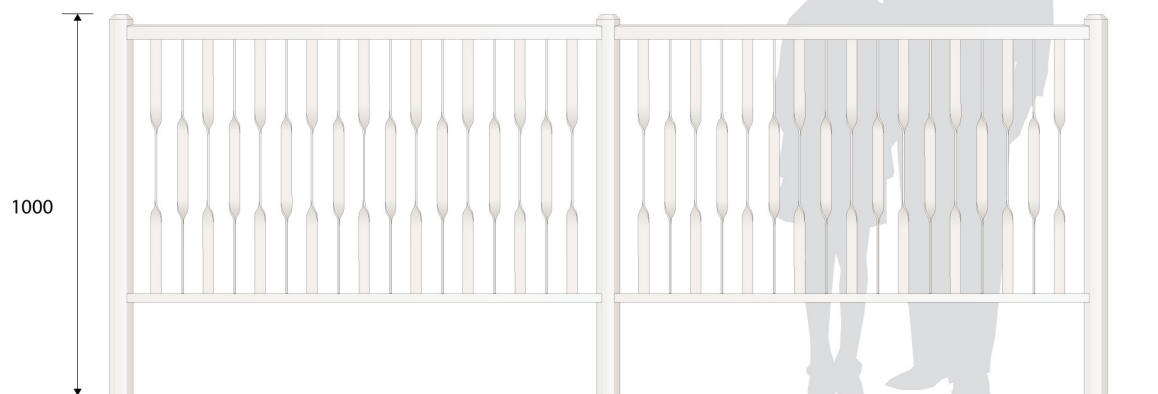
>> 볼라드

- ① 지역상징성 : 해안을 연상시키는 형상을 모티브로 한 디자인으로 사용색상은 해양풍의 대표 색상인 백색을 채택하였다. 1안은 등대의 외관을 토대로 가로등주의 팔각기둥 형태를 일관성 있게 적용한 디자인 안이며, 2안은 항구의 계선주 형태를 모티브로 한 안으로 1안에 비해 재질이나 형태 면에서 견고하고 육중하게 보여지는 특징이 있다.
- ② 기능성 : 대상지에 설치되는 볼라드 유형은 광장에 설치된 볼라드와 같이 공간 구분이나 사람의 출입을 제한하는 용도가 아니라 차로와 보행로의 경계(특히 횡단보도가 연결되는 지점)에 설치되어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는다. 볼라드의 높이는 차량 내부에서 운전자가 전방 또는 후방을 쉽게 인지할 수 있는 규모로 설계하였으며, 상단부에는 반사체 띠를 부착하여 야간은 물론 주간에도 위치파악이 쉽게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 ③ 설치방식 : 설치 장소는 차량의 보행로 내 주차차와 같은 점유가 이루어질 우려가 있는 횡단보도와 보행로의 경계에 설치되며 볼라드 간의 간격은 자동차 진입 방지라는 목적에 부합하며 유모차나 휠체어의 통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150cm 내외의 간격을 유지한다. 보행로 쪽에서는 볼라드가 설치된 50cm 전방에 점형블럭을 설치하여 시각장애인이 인지하도록 배려한다. 설치 지점이 보도블럭인 경우 보도블럭 표면의 일정한 위치에 각각의 볼라드가 균일하게 설치되도록 배치간격을 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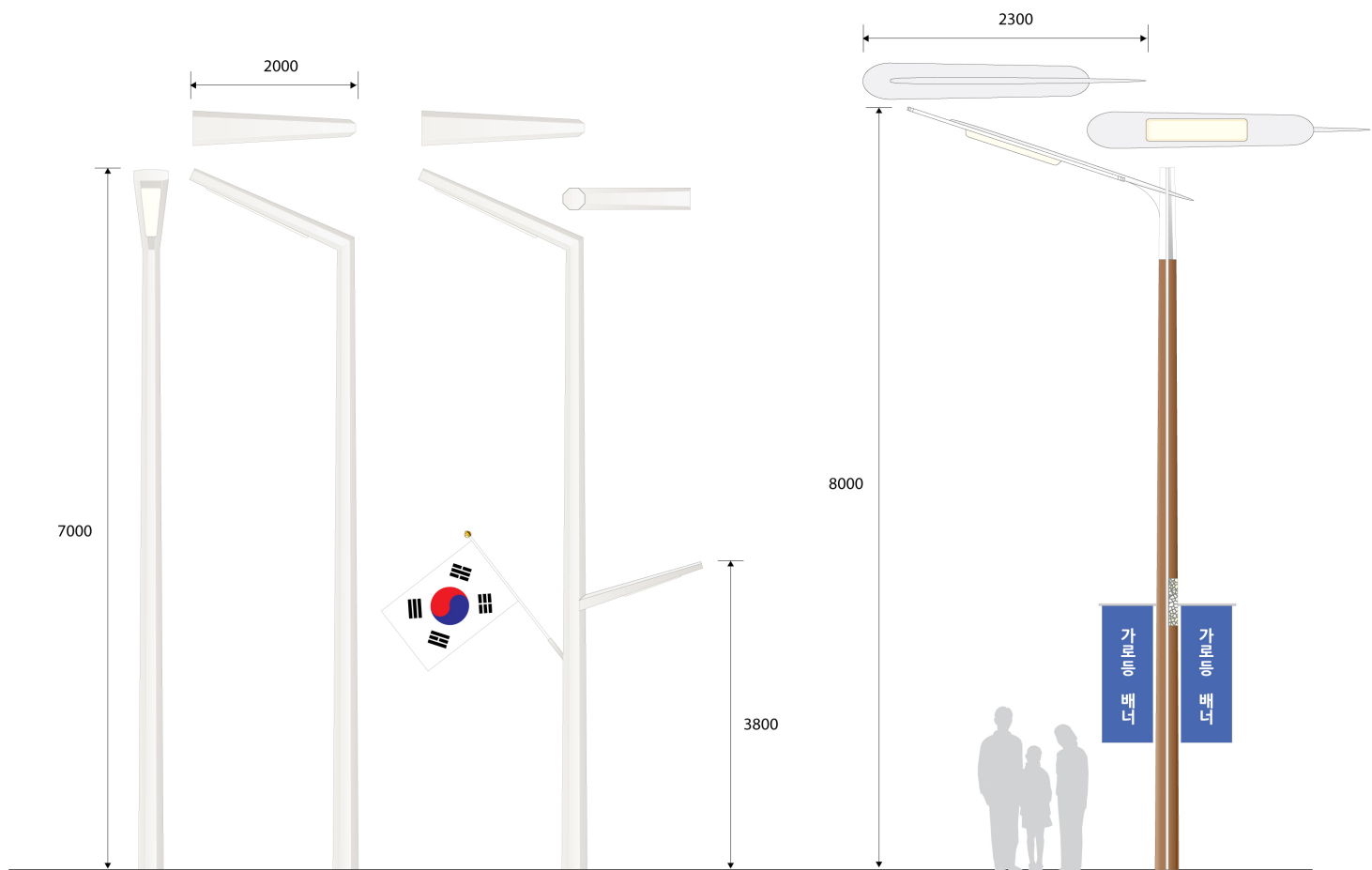
>> 보호펜스

- ① 지역상징성 : 태안의 지역 상징성을 표현한 디자인으로 1안은 태안 해저발굴 유물인 죽간의 형태를 적용한 안으로 파배기 형상의 철판 띠를 수직으로 배열하였으며, 2안은 파도를 상징하는 파장 형태의 원이 교차하는 간결한 형태를 배열한 안으로 노출면을 최소화 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면서 구조적으로 강도를 유지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 ② 일체성 : 대상지 내에 설치되는 다른 가로시설물과의 일체감을 주기 위하여 기둥의 형태를 가로등주에 적용한 8각 기둥과 동일하게 적용 하였으며, 사용 색상 또한 콘셉트 컬러인 해양풍의 백색을 적용하였다.
- ③ 기능성 : 설치 장소가 버스터미널 도로로서 무단횡단을 방지하는 기능을 요구하기 때문에 경량 구조로 구상하였다.



>> 가로등

- ① 기능성 : 대상 가로에서의 비중있는 가로경관 요소로서 기능적으로 가로등의 역할 및 비중을 설정하여 조형적으로 두드러지지 않고 주변 환경 및 다른 시설물과 조화를 이루는 통합된 형태로 구상하였다.
- ② 안전성 : 등주의 형태가 각이 지거나 등주를 이용한 다른 설치물로 인한 보행환경의 저해 및 파손에 따른 안전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견고하면서 안전한 구조를 채택하였다.
- ③ 조형성 : 기능성 위주의 형태를 지향하면서 구체적인 형상의 표현은 최소화하였으며, 등기구는 컴팩트한 크기로 제시하였고 지자체 로고 등 상징물의 표현은 지양하였다.
 - 1안 ▶ 팔각기둥의 등주를 기본 형태로 하여 윗부분에서 밑부분까지 테퍼를 이루면서 구조적인 안정성 및 시각적인 안정성을 고려하였다. 등이 매립되는 암 부분 역시 상단 팔각등주에서 파생되어 펼쳐지면서 간결성과 유연한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보행로 쪽에는 동일한 파생적인 형태의 보행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구상 하였다.
 - 2안 ▶ 범선의 마스트를 연상시키는 등주를 기본 형태로 하여 노 모양의 암이 결합되어 해양 분위기를 연출하는 디자인으로 구상되었다. 등주는 십자형의 철구조에 목재를 감싼 형태로 친근한 재질감과 안정감을 주는 디자인으로 구상되었다. 보행등은 별도로 암이 돌출되지 않고 등주에 매립된 형태로 협소한 보행공간에 적합하도록 구상되었다.



>> 버스쉘터

대상지의 버스 정차 장소는 공영버스터미널을 비롯한 여러 곳이지만 규모를 갖춘 버스쉘터는 보행공간의 여건 등으로 시장 입구인 축협 전면에만 설치되어 있다.

최근 지자체마다 개별 디자인의 버스쉘터를 설치하는 것이 보편화 되고 있지만 설치 수량이 적은 경우 제작 단가가 상승되는 부담을 안고 있다. 대상지의 버스 쉘터 디자인은 기성 제품 또는 소량의 제작에도 제작 단가 상승이 최소화 되는 디자인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① 기능성 : 쉘터를 활용한 광고 및 디지털 정보제공 장치 등 복잡한 기능을 지양하고 버스 쉘터가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안전한 승차 및 승차 대기, 운전자 및 승차자(차량 내, 쉘터 대기)로 하여금 위치 인식이 용이한 형태 및 사인을 갖추는 것에 중점을 두어 계획하였다. 또한 야간 이용 승객의 편의를 위한 사인의 조명 매립 및 보행등을 설치하였다.
- ② 안전성 : 쉘터 내부가 외부에서 인지가 잘 되도록 투명 재질의 사용을 확대하였으며 구조를 이루는 프레임은 내구성이 우수한 경량 재질을 사용하는 것으로 구상하였다.
- ③ 조화성 : 저명도 저채도 색상을 원칙으로 다른 가로 시설물에 적용된 콘셉트 색상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기성품의 활용을 고려하며 단품 제작 및 현장 설치가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를 채택하였다.

1안 ▶ 보행로의 여건을 고려한 단순한 형태의 소규모 쉘터로서 전면과 버스 진행 방향이 개방된 구조로 전체 색상은 콘셉트 색상인 백색을 채택하였다. 지붕 상단에 강조색인 녹색 바탕의 버스 픽토그램을 표시하여 작은 크기이면서 명확한 기능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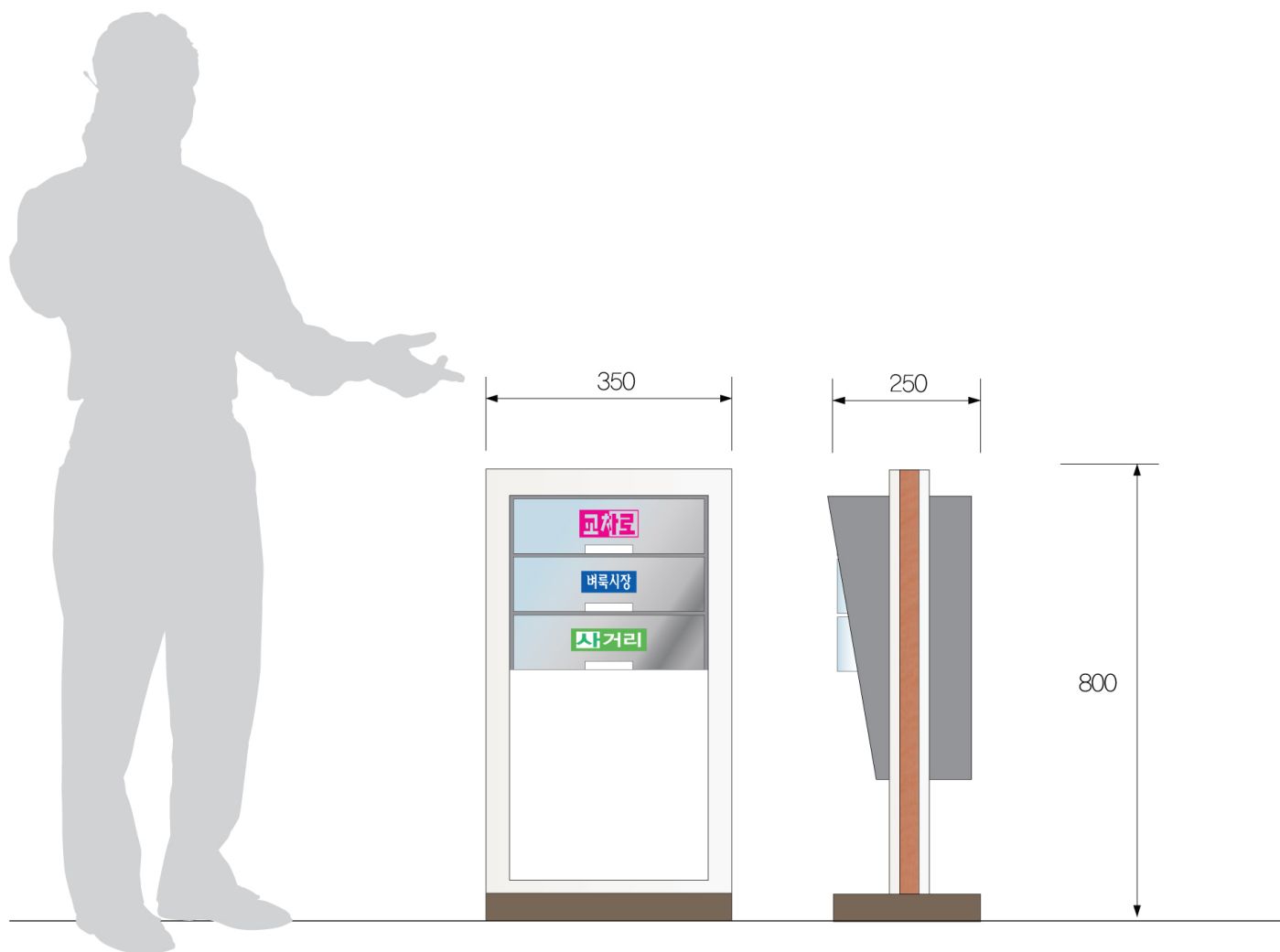
2안 ▶ 해양풍의 몽골텐트형 쉘터로 파이프 구조로 된 게이트 형태의 지지대에 매달린 파라솔 지붕으로 디자인 되었다. 사방이 개방되어 동절기에 안락감이 저감될 우려가 있으나 번잡한 도심지에서 적합한 구조이다. 적용 색상은 콘셉트 색상인 백색을 사용하고 있으며, 1안과 마찬가지로 지붕 상단에 픽토그램 사인을 부착하였다.



>> 정보지함

이용자의 통행이 빈번한 터미널과 같은 여유 공간이 확보된 장소에 설치하되 가급적 설치 수를 제한 하도록 계획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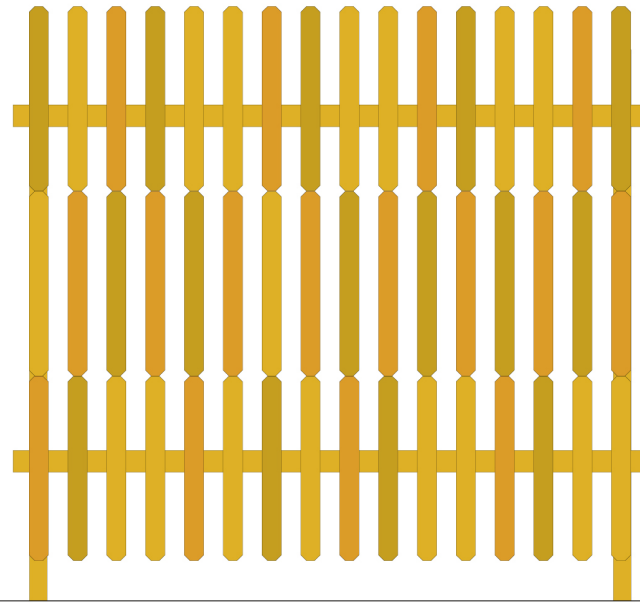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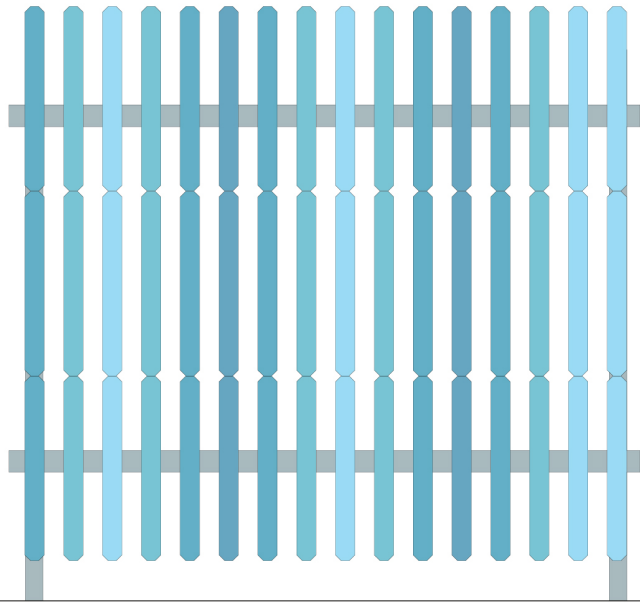
- ① 규모 및 형태 : 정보지함의 크기는 정보지의 규격과 일치되게 하여 정리정돈을 유도하며 기존 발행물 외에 추가될 것을 예상해 여유 공간을 남겨두었다.
- ② 주변과 조화되는 저채도 색상을 권장하는 동시에 이용자가 대상물의 용도를 명확하게 파악하기 용이한 형태를 택했으며, 다른 견고한 시설물에 덧대어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구상하였다.



>> 가림막 웬스

대상가로의 건축물이 조성되지 않은 나대지나 공터 등 도시 미관이 저감될 수 있는 지점의 경계에 설치하여 정돈되지 않은 장소를 은폐하기 위한 기능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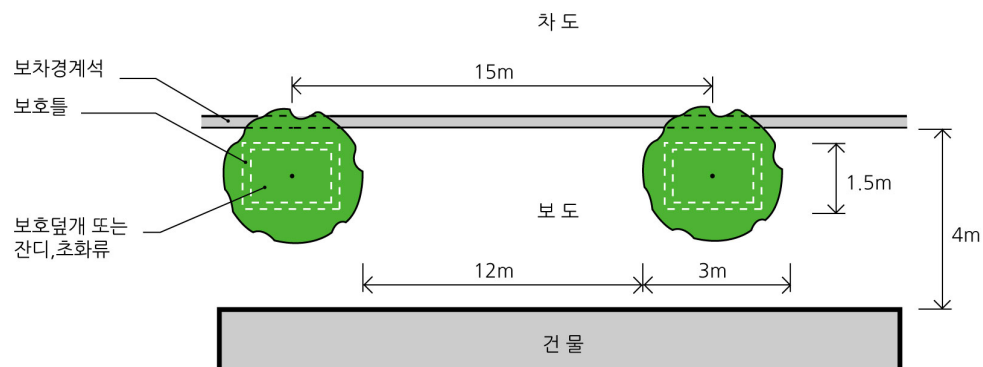
- ① 규모 및 형태 : 기능을 우선하여 단순하고 간결한 형태로 은폐장소의 전면 은폐가 아닌 반 투과 형식을 취하기 위하여 울타리의 높이는 지표면에서 150cm로 하며 가로널과 틈새를 동일한 간격으로 연속 배치하여 개방성을 확보하도록 디자인 하였다.
- ② 지역 상징성 : 태안 해저출토 유물인 죽간의 형태를 모티브로 하였으며 보호펜스의 형태와 연계하여 해양풍의 청색계열 색상을 단계별로 활용하여 잔잔한 리듬감과 활기찬 이미지를 부여하고 있다.
- ③ 유지 보수성 : 표면에 광고 점착지의 부착이 어렵도록 처리를 하며 부분적인 파손 시 교체 및 사용이 종료 된 후 다른 장소에 재 설치가 용이한 재료와 구조로 구상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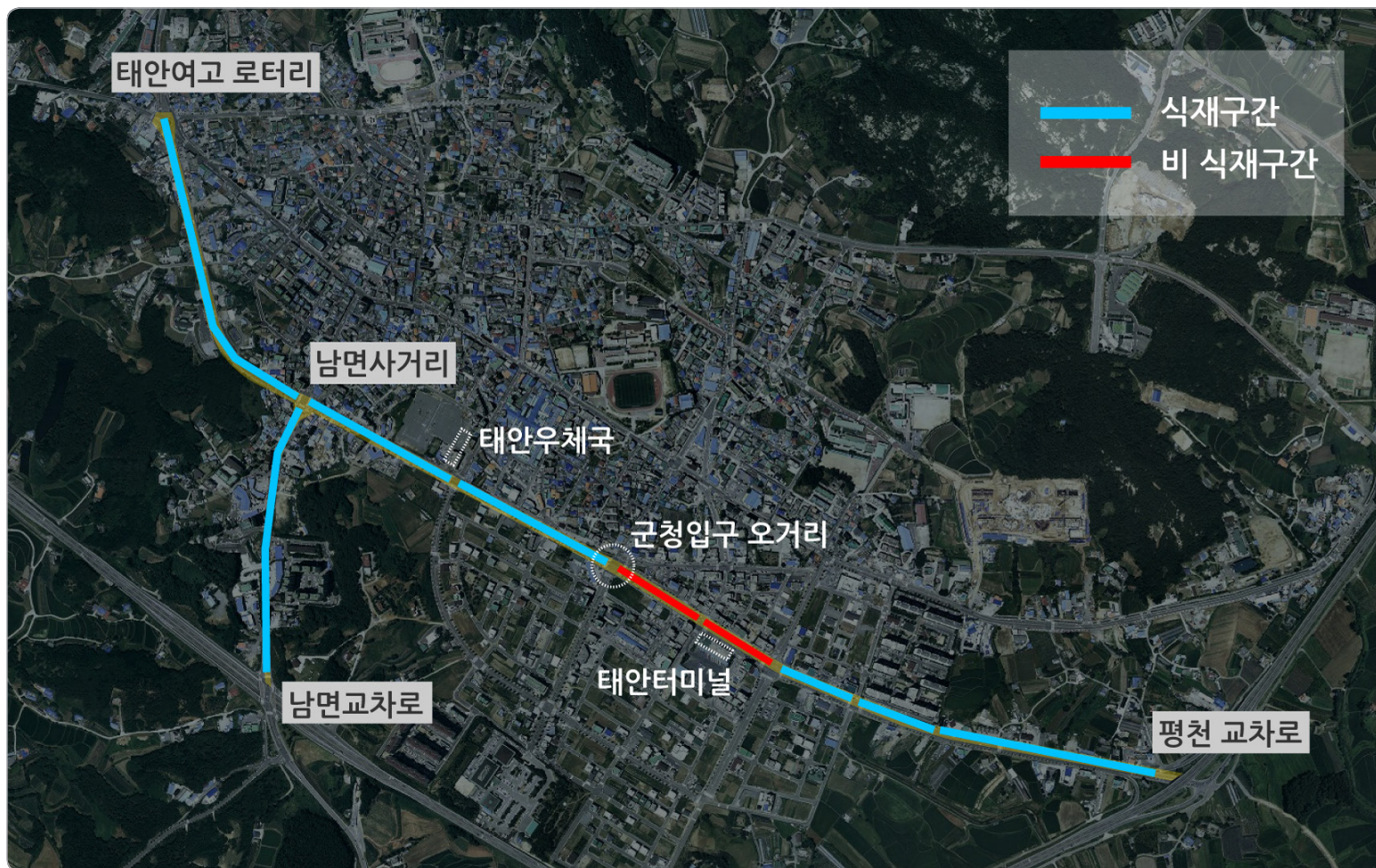


1500

>> 가로수 식재기준

- ① 법정 식재 기준은 8~15m 간격으로 식재를 권장하다.
 - 태안읍 대상가로는 대부분 8m 기준으로 식재되어 있으나, 검토되어지는 수종 (모감주나무, 산딸나무)의 수관의 외형, 가지의 구조를 고려하면 15m 이상이 적정하다.
- ② 보행로 폭이 4m 이하인 곳은 가로수 식재를 하지 않고, 그럼에도 상가가 면하지 않은 곳은 가로수를 식재한다.
- ③ 식재간격은 수종에 따라 가변적이나 15m 간격으로 건물 및 블록 형태에 따라 유연하게 식재 하도록 한다.





〈대상가로의 가로수 식재구간〉

>> 가로수

>> 보행로 화단부

보행자의 통행량이 많은 버스터미널 네거리에서 군청입구 네거리까지의 중심가로에서는 가로수를 식재하는 대신 가로화분의 사용을 권장하여 보행공간을 확보하도록 한다.

기존의 은행나무는 다른 수종으로 대체하며 가로수의 식재 간격은 12m를 원칙으로 하되 건물의 볼륨 형태나 업소의 간판 여건에 따라 조정하여 식재하도록 한다.

>> 대체 수종

① 산딸나무(Kousa/Cornus kousa)

아시아의 산지 숲에 분포하는 층층나무과(層層科)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이남에서 서식한다. 성목은 높이가 7~12m 가량으로 5~6월 무렵 흰색꽃이 가지 끝에 무리져서 피었다가 10월에 붉은 열매를 맺는다. 꽃과 가을에 붉게 물든 단풍이 아름다워 정원수나 공원수로 널리 식재되고 있다.

② 모감주나무(Goldenrain tree/Koelreuteria paniculata)

중국과 한국 등 동아시아가 원산지인 무환자나무과(無患子科)에 속하는 꽃피는 교목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황해도 및 강원도 이남의 바닷가에 주로 서식한다. 성목은 높이가 9m 가량으로 6월에 노란색 꽃이 피어 10월에 열매가 익는다. 잎과 파리 모양의 열매를 보기 위해 관상수로 심고 있으며 종자로 염주를 만드는 것에 기인해 사찰에서 많이 심고 있다.

안면도에 모감주나무 군락(천연기념물 138호)이 있어 태안의 지역 상징성을 나타내기에는 효과적이나 수피가 거칠어 아름답지 못하고 섬세한 관리가 요구되는 단점이 있다.



〈산딸나무〉



〈모감주나무〉

》 중앙분리대 화단

공영 버스터미널 주변의 중앙분리대에 2단 식재된 반송과 회양목을 대체하여 잔디 위에 중앙분리대에 적합한 규모와 성장 특성을 지닌 단일 수종의 식재로 주목성과 관리의 용이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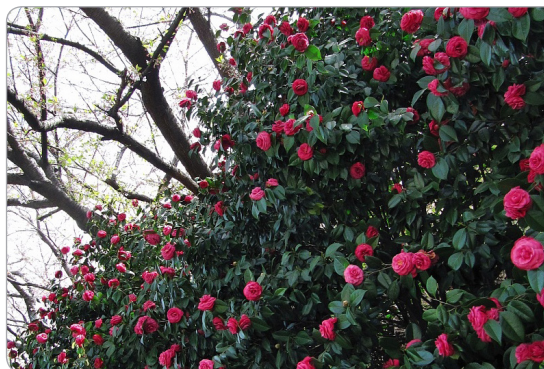
》 대체 수종

① 동백나무(*Camellia japonica*)

한국, 일본, 타이완 등지에 분포하는 차나무과(茶-科 Theaceae)에 속하는 상록활엽 소교목으로 한국에서는 제주도 및 중부 이남의 바닷가에서만 자생한다. 키는 약 15m 정도로 자라며 12월에서 4월 사이에 빨간색 꽃이 피는데 꽃의 밑부분에 꿀이 많아 동박새로 인해 수분이 되는 대표적인 조매화로 꼽힌다. 꽃과 상록 잎새가 수려하나 꽃이 진 후 잔해가 거치장스러운 면이 있다. 대상가로 명칭이 동백로이기 때문에 상징성이 돋보이는 수종이다.

② 콤팩트 화살나무/서양화살나무/에오니우스(*Euonymus alatus* 'Compectus')

화살나무가 동아시아 원산인 것에 반해 콤팩트화살나무는 외래종으로 우리나라 화살나무 보다 잎과 마디가 조밀하고 가을 단풍이 화려하여 세계 3대 단풍 수종에 꼽히고 있다. 수목의 크기는 4~5년 자라면 1.5m 내외가 되며 성장수형이 암전하여 생울타리용으로 애용되며 맹아력이 강해 원하는 수형을 만들기 용이한 수종이다. 태안 지역에서 자생하여 수목공급과 식재 후 안정적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다.



〈동백나무〉



〈콤팩트 화살나무〉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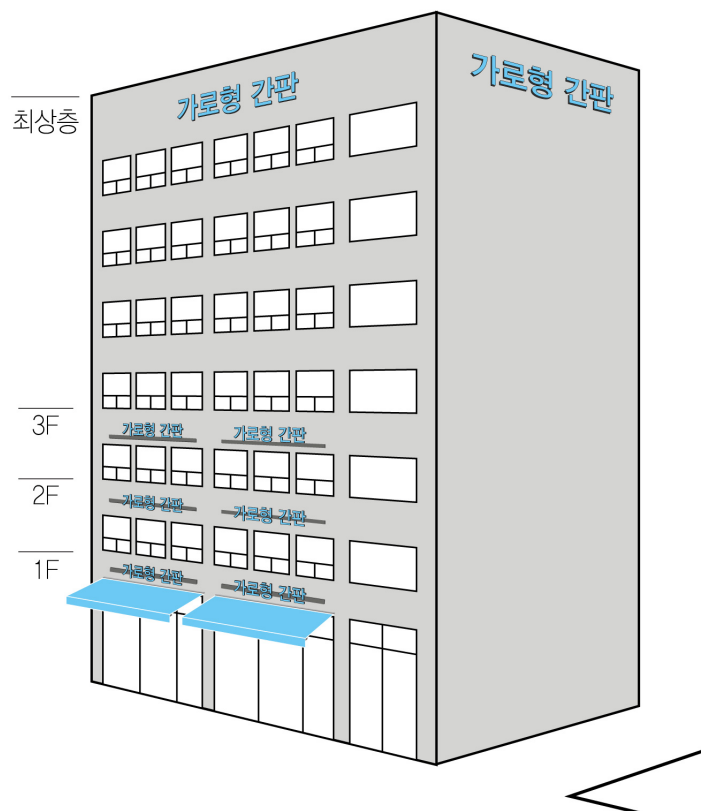
》가로형 간판

수량	· 1개 (곡각지점 및 출입구가 앞뒤 도로에 접한 업소는 1개 추가) *곡각지점, 앞뒤도로 모두 접한 업소는 2개의 조건중 1개선택
제한	· 점포주택의 주거부분으로 쓰이는 해당 층에는 설치금지 · 간판에는 실물사진 이미지를 표시할 수 없다.
주민참여	· 건물의 주출입구 1층상단 및 최상단에는 입체형 혹은 판류형의 된 건물명 간판설치를 제외한 광고물 설치 금지 · 구획별 주민협약에 따라 조인트 바의 색 및 위치를 통일하여 설치가능 · 총면적기준으로 주민협약에 따라 자율적인 디자인 가능(2층 이상)
표시방법	· 영역의 구분 － 가로너비 : 전체 가로 폭의 80% 이내로 해당 업소의 가로 폭 또는 창틀선 이내로 10m 이내 － 세로높이 : 해당 업소의 층간 벽면 폭으로 하고, 좁거나 전면이 유리인 경우 창문 개폐 등으로 영역을 정하며 높이는 0.6m 이하 － 두께 : 건축 벽면으로부터 0.3m 이내 · 크기 － 판류형 : 주표기 문자의 높이가 0.5m 이내 － 문자형 : 가로 10m×세로 0.6m×두께 0.15m 이내 · 접이식 어닝간판 － 1층업소에 접이식어닝 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형돌출간판의 부합이 제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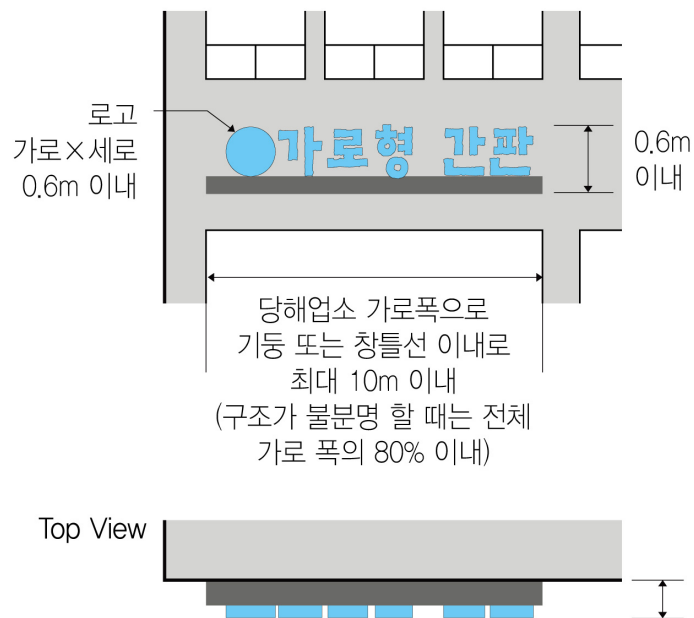
표시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인트 바 : 가로10m이내×세로0.25m×두께0.15m이내 - 판류형로고 : 가로0.5m×세로0.5m 이내 - 문자형로고 : 가로0.6m×세로0.6m×두께0.15m이내 - 부가정보 : 단일문자 가로0.05m×세로0.1m이내(전화번호, 홈페이지등) <p>*프랜차이즈업소 간판크기가 세로0.6×가로10m, 초과할 경우 심의 허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상 : 색상의 활용은 업종 및 지역에 따라 개성 있게 사용하되, 고채도의 원색 (채도 12~14인 빨강, 노랑계열)은 강조색으로 제한 · 조명 : 광원은 직접 노출시켜 사용하지 말고 커버를 씌우거나 매립하여 사용한다. 문자나 도형부분만 부분조명, 점멸방식은 금지하며 권역에 따라 심의를 통하여 허가 받을 수 있다. · 같은 층의 간판 높이 및 위치는 일치되게 정렬하여야 한다. · 1층 가로형 간판의 분할 부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로의 폭이 10m를 초과하는 업소의 경우, 주변 경관, 건물의 외관, 디자인 요소의 이유로 1층의 간판을 분할하여 설치 할 수 있으며, 해당 간판의 총 면적의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2개까지만 분할) *심의 허가
------	--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가로형 간판



>> 문자, 로고, 조인트바



1. 문자

가로형 간판 0.6m 이내

2. 조인트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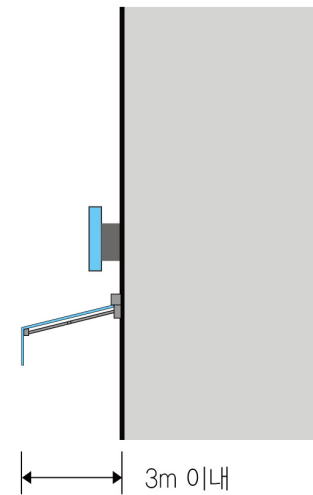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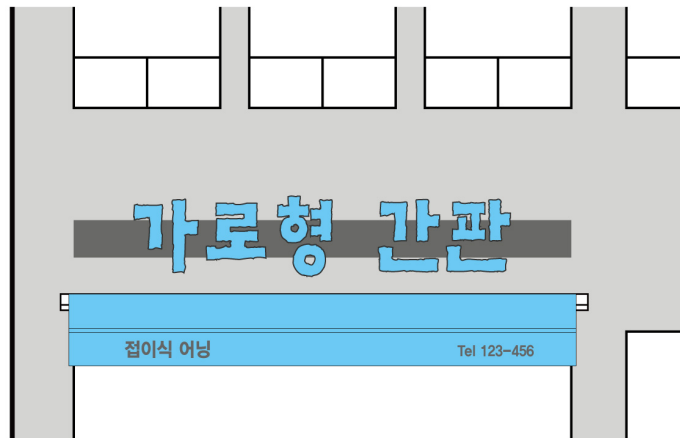
형 간판 0.25m 이내

3. 부가정보 (전화번호, 홈페이지 등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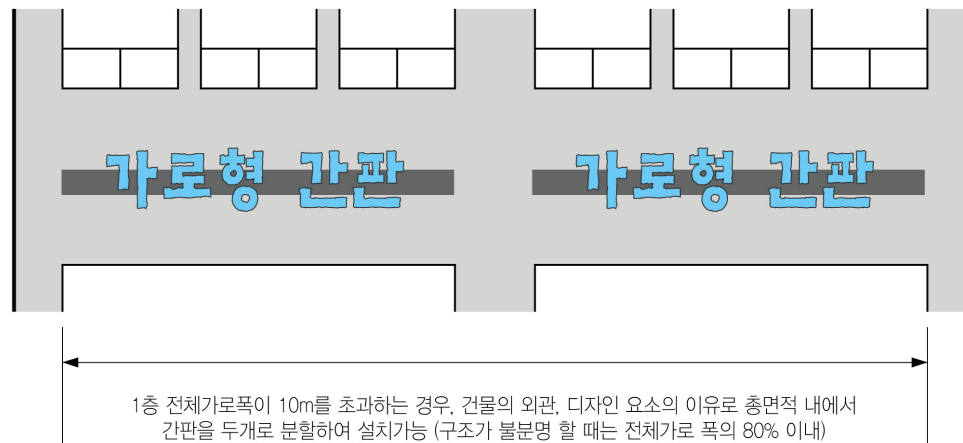
다 0.05m 이내
Tel. 123-4567 0.1m 이내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접이식 어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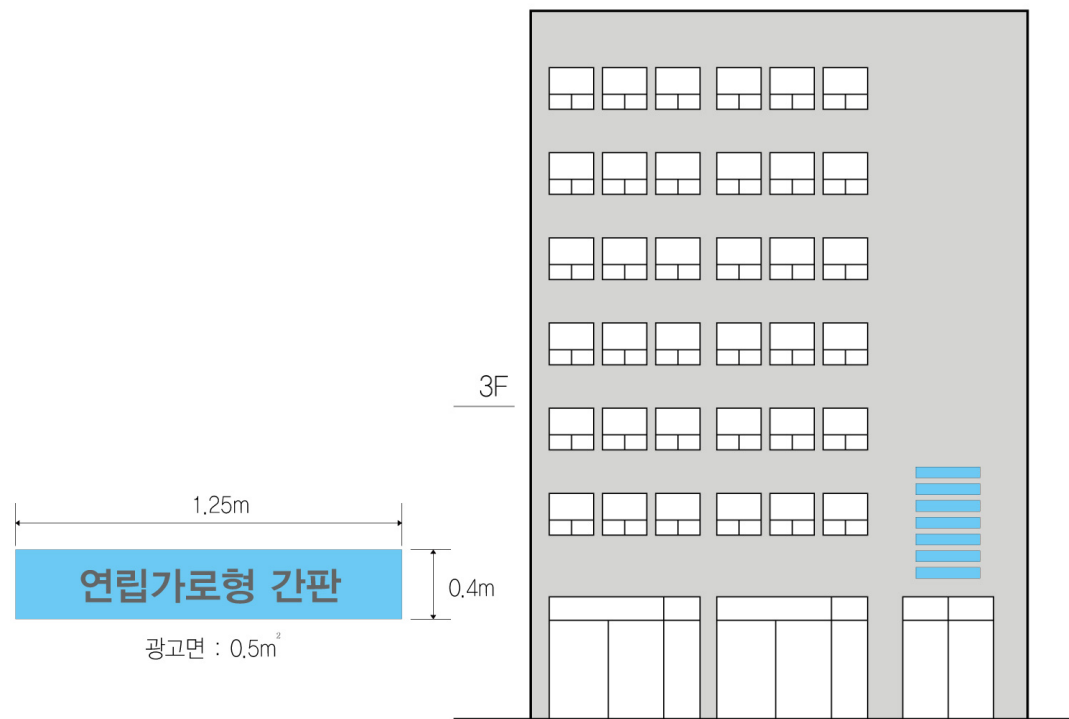
》 1층 가로형 간판 분할 부착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 연립가로형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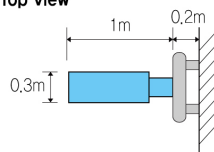
- 대상 : 4~7층 업소로 가로형 간판을 부착할 공간이 없는 업소에 한함 (연립지주형간판을 설치한 업소는 설치불가함)
- 연립가로형간판의 개별규격은 가로 1.25m×세로 0.4m 하여 연립가로형간판을 설치 할 수 있다.
- 2~3층 벽면에 부착하여 시인성을 좋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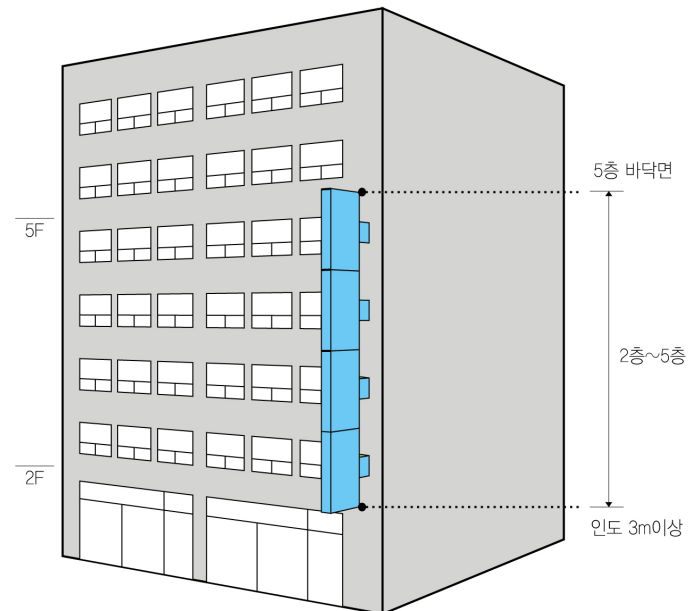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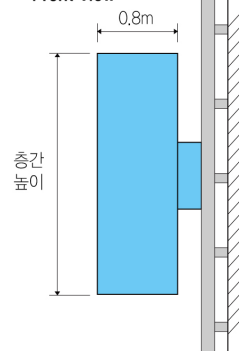
》돌출 간판

- 돌출 간판의 허용 대상은 2~5층 업소로 1층 및 6층 이상은 제외한다.
- 돌출간판은 건물의 좌·우 한쪽 모서리 별도의 지지대를 설치하여 게시하며 대상 가로에서는 한 건물당 1열만 허용한다.

Top view



Front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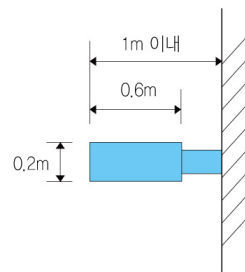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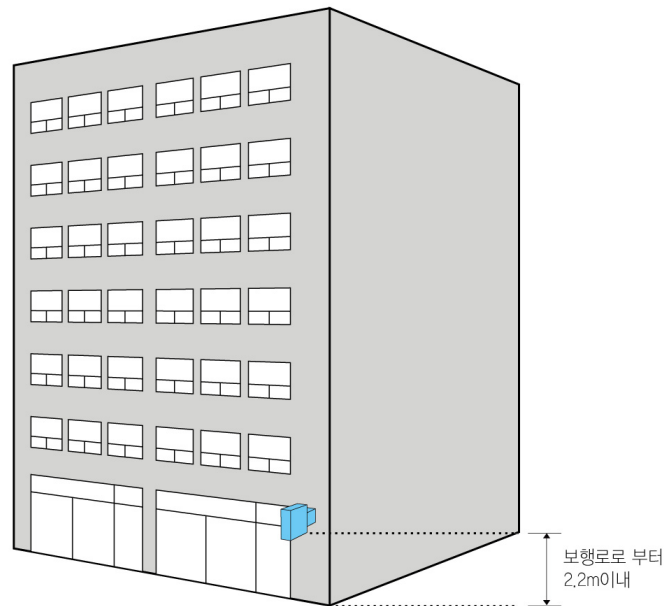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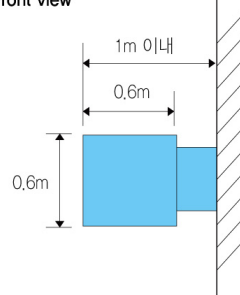
>> 소형돌출 간판

- 1층 업소 중 보행로에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 1개 이하의 간판설치 업소에 한하여 허용하며 접이식 어닝간판을 설치한 경우 제한한다. (접이식 어닝 설치할 경우 설치불가)
- 소형돌출 간판 설치여부는 건물단위로 통일함

Top vie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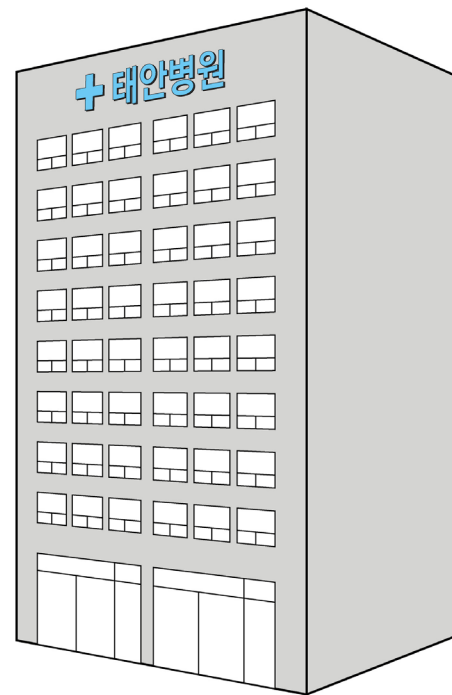
Front view



보행로로부터
2.2m이내

》 대형(상업)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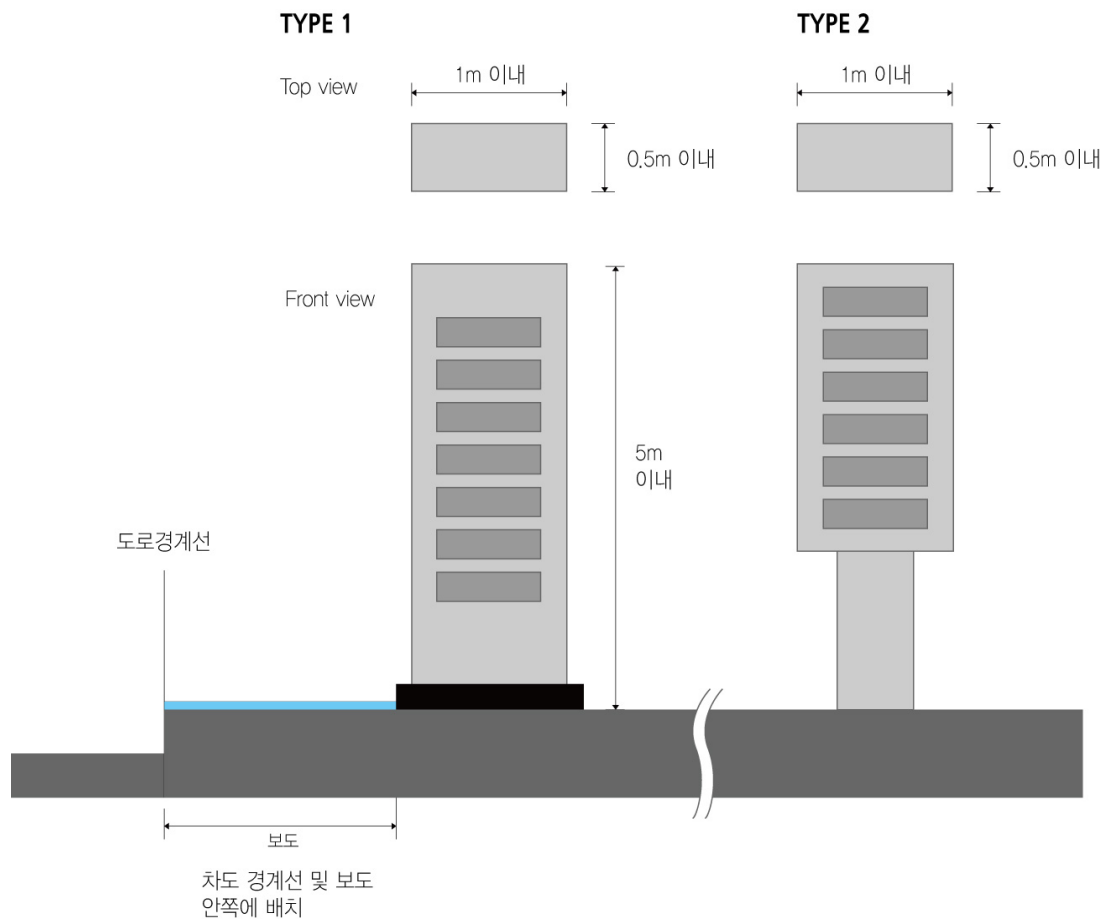
- 대형 산업 간판은 5층이상 건물에 하나의 업체 또는 기관에 입주한 경우로 건물 해당층 상단에 부착한다.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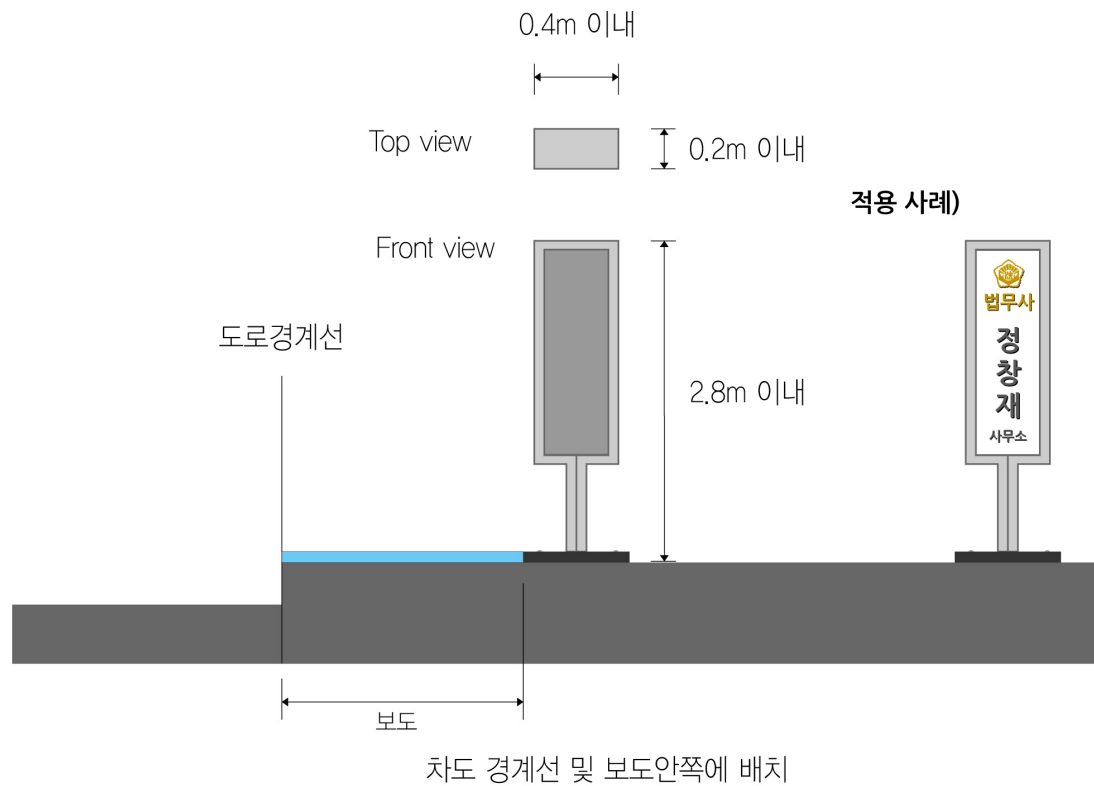
>> 지주이용연한 간판

- 5층이상 건물 혹은 5개 이상의 업소가 입주한 건물에 설치가 허용되며, 연립간판이 있는 경우 설치가 불가하다.



》 단독주이용 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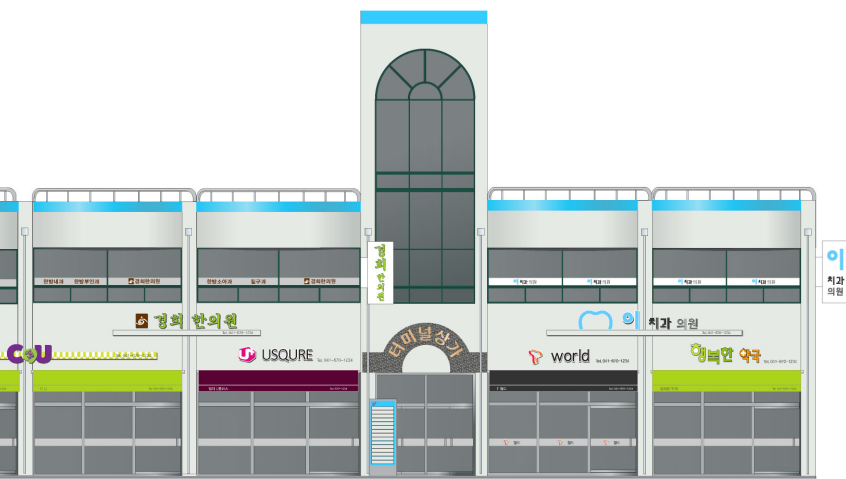
- 대상 : 주변 15m이내 단독업소이고, 설치 해당부지가 있는 경우에 허용한다.



>> 옥외광고물

>> 태안 버스터미널





>> 옥외광고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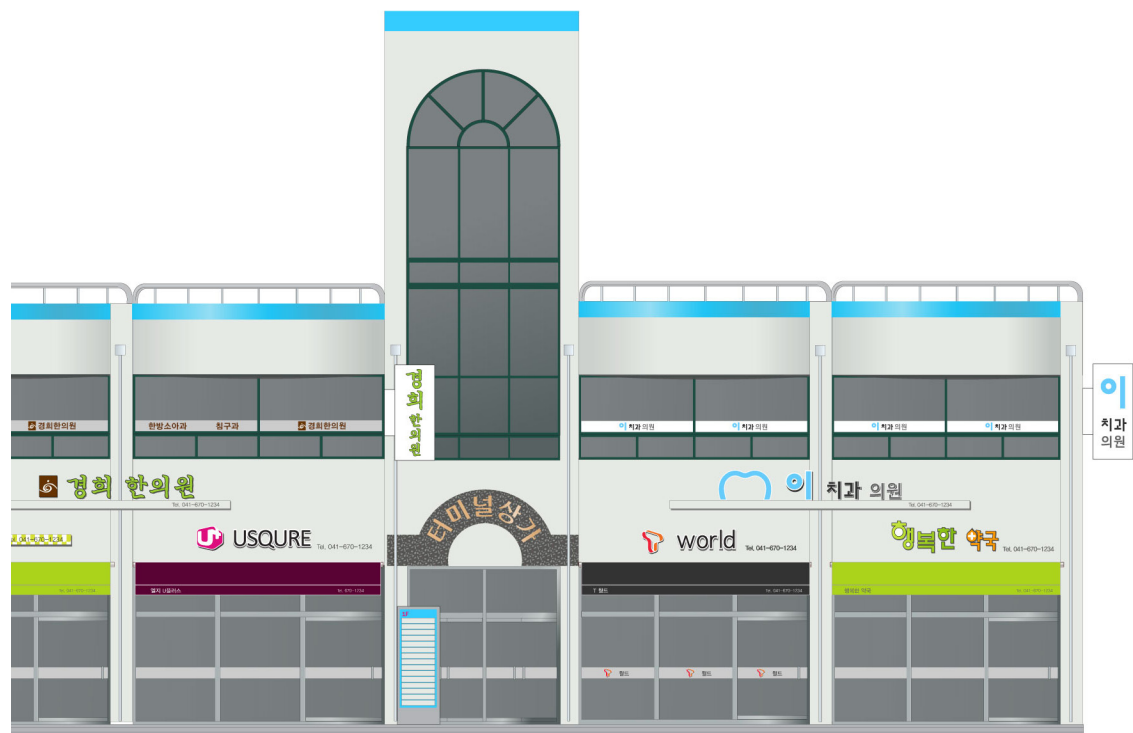
>> 태안 버스터미널





>> 옥외광고물

>> 태안 버스터미널





>> 옥외광고물

>> 삼영빌딩의 6개동





>> 옥외광고물

>> 삼영빌딩의 6개동





>> 옥외광고물

>> 삼영빌딩의 6개동





>> 옥외광고물

>> 학암식관의 4개동





>> 옥외광고물

》학암식관외 4개동





>> 옥외광고물

》학암식관의 4개동





04.3 조감도





04.3 조감도





04.3 조감도





05

부분별 예상 사업 비용

05.1 우선순위별 사업

05.2 부록

>> 우선순위별 사업

>> 사업구간 총 예상 사업비용

- 전체 지구에 적용하기 위한 계획으로 태안버스터미널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시설물 정비, 조경수 식재 등에 12억9277만원의 총 사업비가 소요됨으로 예상된다.

[단위:천원]

번호	사업명(품명)	예상비용	시행년도	비고
1	터미널 간판정비	100,000	2013년	2.4km구간
2	전선 지중화 사업비	6,720,000	2014년	
3	옥외광고 정비	1,228,000	2014년~2015년	
4	옥외광고 철거비	38,295	2014년~2015년	
5	시설물 및 조경수	4,003,380	2015년~2016년	
6	시설물 및 조경수 철거비	103,093	2015년~2016년	
합 계		12,192,7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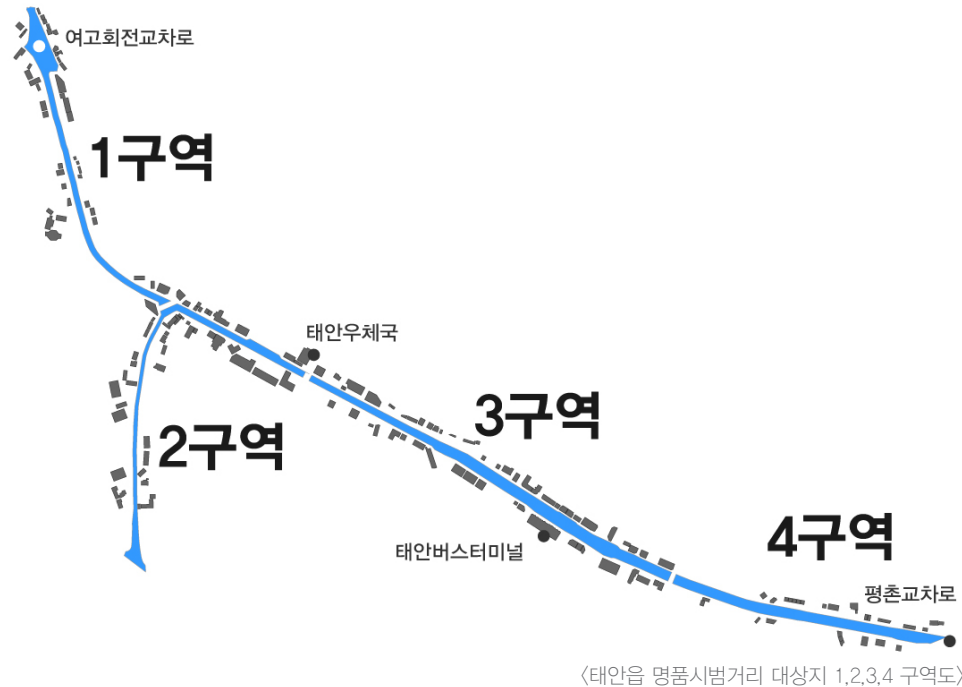
>> 우선순위별 총 사업비용 60억에 맞춘 계획

- 60억 사업예산에 맞춘 계획 범위는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3구역을 주 대상으로 하여 터미널 간판정비, 전선지중화, 3구역간판정비, 시설물 정비, 조경수 식재 등의 사업을 계획한다.

[단위:천원]

번호	사업명(품명)	예상비용	시행년도	비고
1	터미널 간판정비	100,000	2013년	1km구간
2	전선 지중화 사업(3구역)	2,800,000	2014년	
3	옥외광고 정비(3구역)	501,300	2014년~2015년	
4	시설물 및 조경수(3구역)	2,626,940	2015년~2016년	
5	옥외광고, 시설물철거비	71,760		
합 계		6,000,000		

>> 우선순위별 사업 예상비용



>> 1단계- 터미널 간판정비

- 전체사업을 우선순위 별로 6단계로 구분하였을 때 1단계 사업으로 태안버스터미널에 입주된 19개 점포의 간판 정비계획으로 철거와 파사드 정비가 포함된 계획에 1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단위:천원]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가로형(채널)	4m	식	19	3,000	57,000
어닝		식	13	800	10,400
돌출형		식	6	400	2,400
파사드 정비		식	19	1,500	28,500
철거		식	25	68	1,700
합 계					100,000

>> 우선순위별 사업

>> 2단계- 옥외광고물 3구역

· 2단계 사업으로 태안버스터미널 건물을 제외한 3구역(태안버스터미널 주변)의 156개 점포에 대한 간판 정비계획에 5억원 가량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단위: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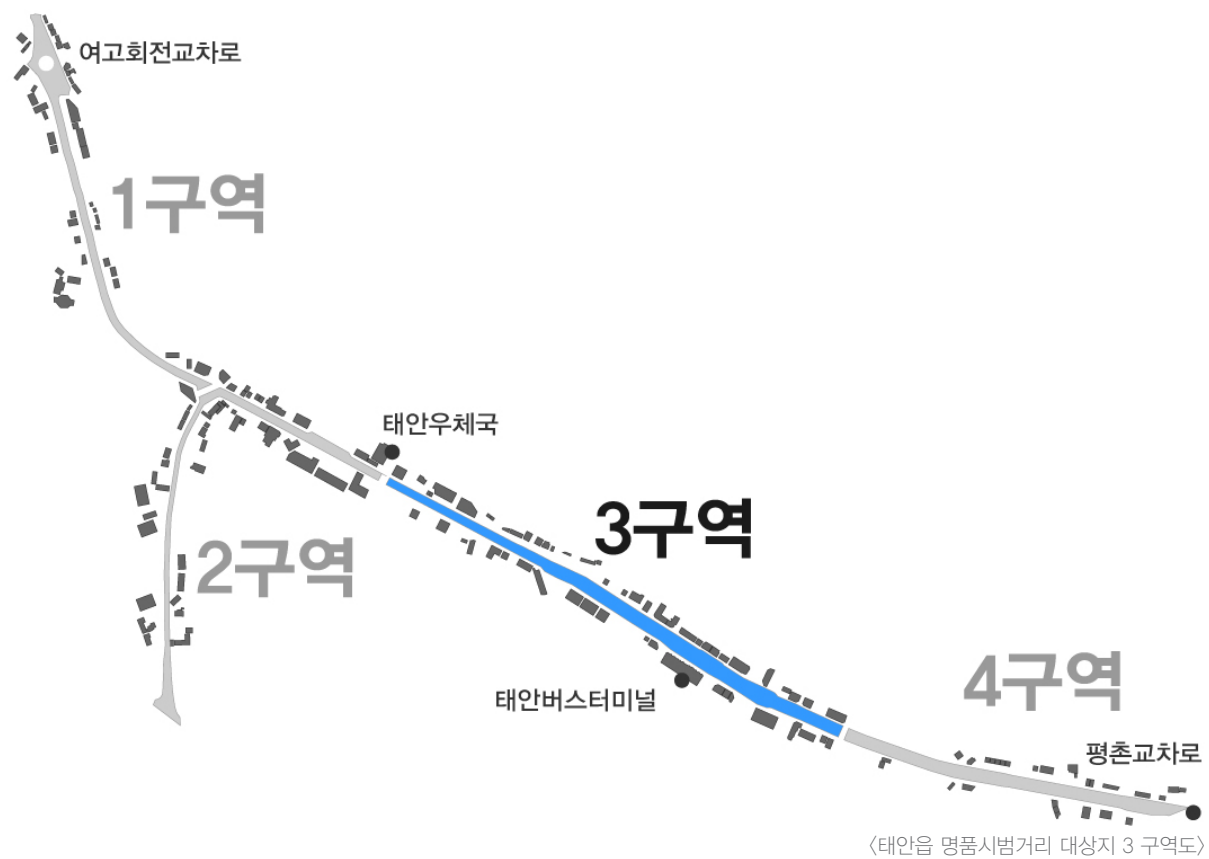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가로형간판	3m	식	10	1,500	15,000
2	가로형간판	6m	식	12	2,700	32,400
3	가로형	4m	식	143	2,500	357,500
4	접이식어닝		개	78	800	62,400
5	돌출형		개	35	400	14,000
6	연립가로형		개소	3	1,000	3,000
7	지주이용연합간판		개소	2	3,500	7,000
8	단독지주이용간판		개소	5	2,000	10,000
합 계						501,300

>> 3단계- 시설물 및 가로수 3구역

· 3단계 사업으로 태안버스터미널 앞 파고라를 포함한 3구역(버스터미널 주변)에 대한 시설물 및 조경수 정비계획에 26억2694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단위:천원]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터미널파고라		식	1	2,000,000	2,000,000
2	가로등		식	30	2,500	75,000
3	가림휰스	m	식		450	
4	버스휰터		개소		8,000	
5	휰스		ea	70	250	17,500
6	볼라드		ea	120	350	42,000
7	보도블럭	m ²	회배	6,392	70	447,440
8	화분		ea	45	400	18,000
9	조경수		그루	60	200	12,000
10	중앙분리대화단		ea	75	200	15,000
합 계						2,626,940



>> 우선순위별 산업 예상비용

>> 4단계- 옥외광고물 1,2,4구역

· 4단계 사업은 1,2,4 구역 198개 점포에 대한 간판정비 사업으로 가로형간판, 접이식 어닝등 총 9가지 종류의 간판이 계획되며, 7억2670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단위:천원]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가로형간판	3m	식	46	1,500	69,000
2	가로형간판	6m	식	53	2,700	143,100
3	가로형	4m	식	97	2,500	242,500
4	접이식어닝		개	125	800	100,000
5	소형돌출		개	58	500	29,000
6	돌출형		개	24	400	9,600
7	연립가로형		개소	7	1,000	7,000
8	지주이용연합간판		개소	27	3,500	94,500
9	단독지주이용간판		개소	16	2,000	32,000
합 계						726,700

>> 5단계- 시설물 및 가로수 1,2,4구역

· 5단계 사업은 1,2,4 구역에 가로등, 가림휰스 등등 총 9가지의 시설물 정비와 조경수 식재 계획에 13억7644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단위:천원]

번호	품명	규격	단위	수량	단가	금액
1	가로등		식	66	2,500	165,000
2	가림휰스	m	식	680	450	306,000
3	버스휰터		개소	1	8,000	8,000
4	휰스		ea		250	
5	볼라드		ea	160	350	56,000
6	보도볼력	m ²	화배	11,272	70	789,040
7	화분		ea		400	
8	조경수		그루	262	200	52,400
9	중앙분리대화단		ea		200	
합 계						1,376,440



》 철거 예상비용

- 간판 및 시설물 정비 그리고 조경수 식재를 하기 전 철거를 위한 전체 구간에 대한 철거계획으로 1억4139만원의 사업비가 예상된다.

[단위:천원]

순서	분류	예상비용	비고
1	옥외광고	38,295	
2	시설물 및 가로수	103,093	
합 계		141,388	

>> 기타 공모사업

》 본 사업과 관련한 중앙 및 도 공모사업

- 본 사업계획에서 부족한 사업예산은 중앙부처 및 도에서 추진하는 관련 공모사업 등에 공모, 연계 추진하여 사업비를 확보 하도록 한다.

① 안전행정부

-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지구 시범사업
 - 사 업 비 : 총 513억 (10개 지구 선정)
 - 사업기간 : 2013년~2015년
- 지능형 관제(CCTV) 시범사업
 - 사 업 비 : 총 5억(2개소)
 - 사업기간 : 2012년. 7월~11월
- 희망마을 만들기(주민 복지편의, 취약지역 개선)
 - 사 업 비 : 총 4억(25개 시군 선정-지자체 별 4억)
 - 사업기간 : 2012년

② 문화체육관광부

- 마을미술프로젝트 사업
 - 사 업 비 : 총 10억 (전국 1곳)
 - 사업기간 : 매년
- 간이역 및 유희공간, 문화와 디자인을 통해 문화공간으로 조성
 - 사 업 비 : 총 00억(7개 지역)
 - 사업기간 : 2013년

③ 충청남도

- 유니버설디자인 사업
 - 사 업 비 : 도비 1억4500만원
 - 사업기간 : 매년
- 간판이 아름다운거리조성 사업
 - 사 업 비 : 국도비 2억 6000만원
 - 사업기간 : 2013년

>> 참고문헌

- de-sign korea: 디자인의 공공성에 대한 상상 2002. 1, 예술의 전당디자인 미술관
- 색채의 이해 2002. 1, 문은배
- 사료로 읽는 태안의 역사 2006. 4, 태안군/충청남도역사문화원
- 태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에 따른 지역발전 전략연구 2007. 4, 태안군
- 경관법을 활용한 환경색채계획 2007. 11, 요시다 신고
-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008. 3, 서울특별시
- 디자인서울 가이드라인 2008. 5, 서울특별시
- 가로시설물 정비기본계획 2008. 12, 홍성군
-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2009. 10, 충청남도
- 성남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009. 12, 성남시
- 충청남도 공공청사 사인시스템 표준매뉴얼 2010. 9
- 대전광역시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2010. 7, 대전광역시
- 서울 우수공공디자인 2010.12, 서울특별시
- 문화와 활력을 바탕으로 한 태안읍 중심권 명품명소만들기 2011. 9, 태안문화원
- 당진시 기본경관계획 2012. 9, 당진시
- 공주시 공공시설물 · 옥외광고물 표준 가이드라인 2012. 8, 공주시
- 참여디자인 2012. 4, 헬렌암스트롱, 즈베즈다나스토이메로브이치 지음
- 충청남도 디자인 표준화 규정집 2013. 1
- 2020 충청남도 경관기본계획 2013. 1
- 내포신도시 옥외광고물 가이드라인 2013. 1, 충청남도

참여연구진 및 연구자문

태안군

이승우 과장 (도시건축과)
김기준 계장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박상현 주무관 (도시건축과, 도시개발)

연구기관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책임

권영현 선임연구위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연구진

이충훈 선임연구위원 (문화·디자인연구부)
박철휘 연구위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오병찬 전임연구원 (충남공공디자인클리닉센터)
유예나 연구원 (문화·디자인연구부)

자문위원

이경진 교수 (국립공주대학교 조형학과)
최창호 팀장 (천리포수목원 식물관리팀)
송복섭 교수 (국립한밭대학교 도시공학과)
김원철 책임연구원 (충남발전연구원 지역도시연구부)